

「산업화이후의 생명운동 연구워크숍」

**생명운동 30년, 역사와 전망:
한살림을 중심으로**

2011. 12.

모심과살길연구소

목 차

'산업화 이후의 생명운동 연구' 기획안 _ 1

워크숍 보고서 I

생명사상 및 운동의 초기 형성과 전개: '원주 보고서'를 중심으로 _ 3
(김용우, 무위당만인회)

『한살림선언』과 생명운동 _ 13

(주요섭, 모심과살림연구소)

워크숍 보고서 II

생명운동과 생활협동운동, 역사와 전망 _ 24
(김재겸, 한살림서울생협)

1990년대 이후 생명운동의 확산 _ 34

(이소영, 고려대 사회학과)

워크숍 보고서 III

지식정보화 시대와 한살림 _ 42
(백승권, 조계종 화쟁위원회)

전환시대 한살림운동의 과제 _ 49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워크숍 결과요약

생명운동·한살림운동·생협운동의 관계와 정의(요약) _ 56

「산업화 이후의 생명운동 연구」 기획안

2011. 5. 10

■ 배경과 취지

- 1980년 전후 생명담론이 세상에 선을 보인지도 30여년이 흘렀다. <원주보고서>(1981)에서 그 윤곽을 드러낸 생명사상과 생명운동론은 『한살림선언』(1989)으로 체계화되고, 이후 한살림운동의 실천과 김지하 시인 등의 이론적 작업으로 그 지평을 거듭 확장해왔다. 이후 생명운동은 종교계를 중심으로 생명평화운동으로 진화하고, 이제 '생명살림'은 보통명사가 되기에 이르렀다.
- 하지만 그 사이 한국사회와 지구촌도 변화에 변화를 거듭했다. 한살림 선언 당시와 비교해보면 세계는 '냉전체제에서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로,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정보지식사회)'로 변화했다(이론의 여지는 있다). 근대화·산업화에 대한 저항과 대안에서 출발한 생명운동이 전혀 다른 세계와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 더욱이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경제위기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가운데 후쿠시마와 구제역을 목격하며 '문명의 전환'과 대안적 생활양식의 창조는 현실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 산업화 이후, 근대화 이후, 민주화 이후, 사회적 변화와 생명운동의 확산을 반영하고 전환의 필요와 열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생명운동 전략이 요청되고 있다.
- 이번 연구는 전환기 한살림운동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살림의 실무자와 활동가들이 운동적 전망을 토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내용

- <원주보고서>와 『한살림선언』을 중심으로 초기 생명운동론 검토
- 1990년대와 2000년대 생명담론 및 생명운동의 심화·확산 과정 개괄
- '세계화'와 '정보화'를 열쇠말로 산업화 이후의 세계에 대한 '생명' 관점에서의

시대 진단

- 변화된 세계의 시대적 과제와 생명운동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모색
- 생명운동의 창조적 진화를 위한 전략의 탐색

■ 실행계획

- 개요: 한살림 내 주요 활동가·실무자와 한살림 밖의 전문가·운동가 패널(직원연구위원)이 함께 하는 3회의 워크숍을 통해 주제를 집중 토론하고 내용을 정리해나가며, 2012년 초에 보고서를 펴낸다. 필요한 경우 마지막 단계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2012년 사업계획에 반영)
- 참가자
 - 한살림 내부 참가자: 지역 한살림의 실무책임자 등 중견실무자 중심, 생명운동에 관심을 가진 이사장 및 활동가 등.
 - 고정패널: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장), 백승권(조계종 화쟁위원회 사무국장), 이소영(고려대 강사)
 - 초청패널: 김용우(무위당만인회), 김재겸(한살림서울생협) 등
- 진행방법
 - 모든 참가자는 워크숍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한다.
 - 워크숍은 일단 6월, 7월, 8월 3회로 집중 기획한다.
 - 『생명운동자료모음』(모심과살림연구소)을 기본 교재로 사용하며 새로운 모색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자료모음을 기획한다.
 - 워크숍 후 패널을 중심으로 토론의 성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진행일정

- 워크숍 I
 - 일시: 2011년 6월 9일(목) 오후 3~7시
 - 장소: 성베네딕도 피정의 집(장충동 분도빌딩 뒤)
 - 주제: 1980년대 생명운동론 다시보기- 원주보고서와 『한살림선언』을 중심으로
 - 초청패널: 곽현용(한살림여주이천광주), 김용우(무위당만인회)
 - 고정패널: 구도완, 백승권, 이소영

- 워크숍 II

- 일시: 2011년 7월 7일(목) 오후 6~9시
- 장소: 한살림서울 5층 교육장
- 주제: 1990년대 이후 생명담론의 심화와 생명운동의 확산
- 초청패널: 김재겸(한살림서울), 유정길(에코붓다)
- 고정패널: 구도완, 백승권, 이소영

- 워크숍 III

- 일시: 2011년 8월 26-27 (1박 2일)
- 장소: 바람과물 연구소
- 주제: 30년, 평가와 전망, 그리고 과제들: 한살림을 중심으로'
- 발표1: 한살림 운동의 내일 (구도완)
- 발표2: 지식정보화 시대의 한살림 (백승권)
- 패널: 참가자 모두 짧은 제언 준비

생명사상 및 운동의 초기 형성과 전개: '원주 보고서'를 중심으로

김용우 (무위당만인회 기획위원장)

1. 원주보고서의 발견과 전후 상황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문서(이하 문서)는 1981년 가을 - 정확한 일자 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8월 말에서 9월 초순(8.15직후)이라고 관계자들¹⁾은 기억하고 있음 - 에 초안이 제출되어 원주의 활동가들이 윤독하고 수정·가필하여 1982년 상반기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이 문서의 발견은 그동안 생명사상의 잉태와 운동이 지금까지 알려진 시작 시점인 원주 한살림의 시작 시점 1985년, 또는 한살림농산의 1986년, 『한살림선언』 시점인 1989년 등의 설을 훨씬 앞지르는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이 문서의 초고는 김지하가 작성하였지만 실제 문서의 완성은 원주활동가들과 장일순 선생도 함께 읽고 수정 가필한 것으로 알려져 생명운동에 대한 원주지역 최초의 공식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지하 선생이 1985년 펴낸『남녘땅 뱃노래』에 실린 「삶의 새로운 이해와 협동적 삶의 실천」²⁾이라는 글과 비교하면 많은 부분이 공유되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이야기가 있다. 이 문서가 가톨릭 원주교구의 사회개발위원회³⁾의 활동을 위한 문서이기에 가톨릭적 요소와 실천지침적 문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남녘땅 뱃노래』의 글은 보편적인 독자를 위해 재구성된 논문으로 성격이 다를 뿐 핵심 골조는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필자가 종합한 바에 의하면 1977년에서 78년경 원주에서는 그 동안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부정부패추방운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운동의

1) 이 문서는 2009년 김상범, 정인재에 의해 교정보보따리가 무위당 기념관에 제출되었고 이에 대해 정인재와 김상범은 작성 시기를 1981년 가을에 김지하에 의해 초고가 완성되고 이를 원주활동가들이 윤독하고 수정·가필하여 최종 완성된 것은 1982년 상반기로 기억된다고 진술. 타이핑은 당시 실무자였던 강백란이 하였음

2) 이 글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민중의 새 세상을 위하여'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3) 1973년에 72년 수해대책기구로 만들어진 재해대책사업위원회는 1979년 사회개발위원회로 명칭을 바꾼다.

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점과 배경, 요인 등에 대해 보완적인 연구(특히 장일순 선생의 변화 부분)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1978년경부터 유기농업강좌(전북쪽에서 처음으로 유기농업을 시작한 전자석씨, 일본에서 온 야마기시즈 및 유기농업관계자 특강 등)가 원주에서 열리고 공동체 운동에 대한 모색이 시작된다. 1979년 원주활동가들은 일본과 홍콩, 대만을 견학하였는데 이때 활동가들은 새로운 협동운동과 유기농업운동, 산촌자연농업운동, 홍콩의 발달된 물질문명 등을 보고 왔다. 80년에도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연수와 유럽연수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광주민주화 항쟁으로 동아시아 연수는 미루어지고 가을에 유럽쪽의 연수는 진행되었으며 81년에는 다시 일본과 대만 연수가 이어졌다. 그런데 이때 견학연수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운동으로 가기 위한 중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었는데 1984년까지 연수가 계획되었고 실제 거의 집행되었다. 특히 1984년의 연수는 박재일 회장을 단장으로 하여 일본의 유기농업과 생협, 공동체, 사회운동에 대한 연수가 진행되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해 이듬해 최초의 도농공동체운동 협동조합인 '원주소비자협동조합'(현 원주 한살림 생협)이 창립되었으며 1986년에는 서울에 '한살림 농산'이 설립되었다.

1980년 12월 김지하 선생이 출소하여 장선생(무위당 장일순)을 보았을 때 두 사람은 운동의 전면적 전환에 대해 교감⁴⁾하고 있었던 것 같다. 김지하 선생이 출옥 후 얼마 되지 않아, 장선생의 제안으로 원주교구의 교육원에서 개신교목사를 비롯한 황인성, 나상기, 정호경 신부, 제정구, 박재일 등이 모여서 생명사상과 운동에 대한 세미나를 했다는 술회⁵⁾가 있다. 그 외에도 이 즈음에 장선생과 김지하 선생의 생명사상과 운동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김지하 선생은 회고록에서 79년경 감옥에서 생명사상과 운동으로의 전

4) 80년말에 출옥을 하면서 절보고 “선생님 운동의 방향을 바꾸셨더군요” 그러더군요. “그걸 자네가 어떻게 아는가? 난 사실 77년서부터 결정적으로 바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네. 땅이 죽어가고 생산을 하는 농사꾼들이 농약중독에 의해 쓰러지고, 이렇게 됐을 적에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봐야지. 산업사회에 있어서 이윤을 공평하게 분배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만 가지고는 풀릴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나는 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 인간만의 공생이 아니라 자연과도 공생을 하는 시대가 이제 바로 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지.” 그랬더니 김시인이, “저도 옥중에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잘못 났다고 하는 것,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분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사실상은 60년대, 50년대 말에 뛰었던 그러한 운동에 대한 반성을 김시인은 옥중에서 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자에 변한 것이 아니지요. 《밥》이라든가 《남녘땅 뱃노래》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벌써 민족전통에 거룩한 사상의 맥을 두고 생명의 문제를 예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제를 “환경의 문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자연을 들러리 세우는 입장밖엔 안 되는 거지요. 또 하나, 오늘날 독일의 녹색당이란 것은 생태학적인 관점인데, 그 방법은 대상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차원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라한알속의 우주』, 『반체제에서 생명운동으로』 황필호 대담, 녹색평론에서 인용

5) 김지하 회고록 『흰그늘의 길 3』, 학교재

환에 대한 모색이 시작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1979년 10.26과 12.12와 80년 5.18을 거치면서 원주캠프의 입장변화를 눈치 챘다고 하며, 본인도 이즈음 불교와 동학관련서적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떼야르 샤르텅에 심취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지하 선생은 이즈음에 무위당 선생의 권유로 난을 치기 시작했으며 장선생과의 만남이 많았다고 회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생명사상과 생명운동에 대한 잉태가 원주에서 이루어지고 김지하 선생에 의해 1981년에 작성되고 활동가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만들어진 생명운동에 대한 현대사의 최초 문서라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것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동학 이후 한국사회의 구체적 사회현실에 생명운동으로 대응하는 최초집단의 지침서라는 의미가 있다.

2. 문서의 구성과 내용

1) 문서의 구성과 내용에 대하여

문서의 구성은 1. 개요, 2. 본문, 3. 주해, 4. 각론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개요는 중간에 가톨릭 성경을 인용한 부분과 맨 끝 문장을 제외해 놓고 『남녘땅 뱃노래』(이하 '뱃노래')의 글과 똑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장 주해의 경우도 개요에 대한 주해이기 때문에 '뱃노래'의 주해와 같다. 다만 문서에는 12개의 주해가 있는데 책에는 14개의 주해가 붙어 있다. 책에 주해 8)과 9)를 새로이 삽입했다.⁶⁾ 이것으로 보아 이 문서의 원문은 김지하 선생이 쓴 것이 틀림없다. 그리

6) 삽입된 주해8)은 책 95쪽의 '우리는 여기에서 20세기에 절정에 달한 생명과괴의 역사가 현대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밟아 진행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문장에 대해 "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어떤 주의, 어떤 사상, 이념 및 그것들의 성취구조 모두를 막론하고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한편으로는 생산력의 확장을 통한 인간해방의 변증법의 과정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을 길러내고 생명이 자기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여 그 결실의 여분을 이웃과 나누는 자로서의 농민, 여분의 생명을 건져 올리고 그 전환을 통하여 전체 생명의 확장, 해방, 완성이 가능하도록 바다에서 힘겨운 일을 하는 어민, 잠들어 있는 생명을 깨내고 거기에 질서를 줌으로서 잠재적인 생명의 에너지를 일깨워 인간을 위하여 봉사하게 함으로서 작게는 산천 초목등의 많은 실존하는 생명의 보존 확장을 가능하게 하고 크게는 범생명의 순환전화를 적극화 시켜 생명의 확장, 축성, 변모를 현실화하는 자로서의 광부들 비롯한 일반산업 노동자들의 극심한 소외와 억압과 착취의 제도화 과정이었으며, 따라서 생명경시, 생명과괴, 소수지배세력을 위한 범생명의 말살과정이기도 했다는 것이다."로 붙여져 있다.

주해9)는 책 98쪽의 '이와 같은 세계질서 안에서 그 속에서는 인간다운 삶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광범위한 대중집단, 곧 <민중>이 나타난다'는 문장에 대해 " 이들은 지구상의 인류의 출현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산을 위하여 범생명의 잠재적 에너지를 일깨워내고 생명의 교감체험과 전환, 순환, 완성과정에 대한 참된 인식에 입각하여 협동적이고 공동체적 삶을 지향해 왔으나 생산의 결과를 수렴하지 못하고 극도로 소외, 억압, 착취 속에서 불안에 떨고 방황하며 동요해 온 계층역사와 생명의 전위이며, 주체이면서도 역사적, 사회적, 영성적으로 왜곡된 생

고 '벧노래'의 맨 마지막 구절은 문서의 주12)의 첫 구절을 본문에 끌어 오므로서 마감 짓고 문서의 주12)를 주14)로 달았다.

개요의 내용은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당시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생명에 대한 정의와 특질 등을 논하며 생명사상과 운동으로의 전화에 대한 이야기들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당시 일반 사회운동의 관점이 서구 시민혁명론에 입각한 자유주의 민주화나, 계급론적 관점의 사회주의 혁명론, 종속이론이나 민족해방론에 입각한 민족해방론을 중심으로 집단의 폭력을 통한 국가권력을 뒤집는 급진적인 혁명이론에 경사되어 있었던데 반해 전통적인 사상과 서구 과학의 새로운 해석과 수용을 통한 생명사상과 협동적 생존에 기초한 생명운동으로의 전환과 확산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현재를 생명의 위기시대로 진단하며 현재에는 죽음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지만 반드시 생명사상이 죽음의 문명을 이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뿌리 뽑힌 민중적 삶, 인간성의 상실, 폭력숭배, 소비숭배, 가학, 피학증세의 보편화, 인간 및 범생명의 물질화, 테러리즘, 복수의 악순환, 이러한 집단적 정신 분열의 현상은 죽음의 옆얼굴이다. 이렇듯, 빈부의 격차에서부터 생태계의 파괴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부조리한 현상의 내부를 꿰뚫어 흐르고 있는 것은 생명 경시, 생명파괴, 반생명의 악마적 경향이다. 이에 대응하여 역시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그리고 전 사회적 규모에서 생명회복과 생명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청되고 있으며, 생명을 일체의 가치관, 인생관, 사회관, 역사관, 세계관, 우주관의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기존의 모든 문화, 과학, 기술의 성과들을 창조적으로 통합할 것과 협동적 삶의 확장에 의한 개인 및 사회적 생명의 진정한 부활, 해방이 요구되고 있다.” **개요 1쪽**

“그런데 생명의 기본적 특색은 자율성이며 모든 기계적 법칙을 벗어나고 극복하고자 하는 자유 의지이다. 생명 진화의 역사는 따라서 자율성 확장의 역사이며, 자유 확대의 역사이다. 남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내 자율성은 침해 받으며, 내 자유는 그만큼 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과 자유는 남을 남으로 남겨두지 않는다. 그것은 남을 자기 속에 흡수하고 스스로 남에게 동화된다. 생명은 이처럼 전일체성을 지향함으로써 자신을 해방시키고 궁극적으로 평등에, 충만에, 빛의 영역에 이르게 된다.” **개요 4쪽**

“분명히 오늘의 상황은 위기이다. 인류가 맞고 있는 최대의 위기이자 지구상의 생명계 전체가 맞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이다. 그러나 위기는 긍정과 부정을 그 안에 동시에 포함한 가능성이다. 가능성이므로 그것은 생명의 승리로 끝날 수도 있으며 죽음의 승리로 끝날 수도 있다. 죽음의 질서에 종사하는 독점자본주의자들, 제국주의자들, 사회제국

명에너지로서의 소수 잘못된 지배집단, 이념, 제도, 경향에 의해 그 영성 및 사회적 생명이 전면적으로 잠식 파괴당해 온 밀바탕 계층, 뿌리 뽑힌 민초, 꿈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이다.”로 붙여져 있다. 『남녘땅 벧노래』, 두레, 1985에서 인용

주의자들, 신식민주의자들, 사회주의 파시스트들, 무기상인들, 관료주의자들, 정상배들, 매판자본가들, 극좌, 극우 모험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 독재자들, 왕조 공산주의자들, 국수주의자들, 분파주의자들, 부정과 악덕에 눈감는 종교인들, 도구화 된 이성을 섬기는 지식인들 - 이들은 어둠 속에서 인류의 멸망, 생태계의 파괴, 생명의 종식을 노리는 악마적 경향의 대변자들이다. 그들은 역사에 어두운 밤의 장막을 내리고 이성과 생명의 빛을 차단함으로써 죽음의 승리를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자기모순이므로 필연적으로 실패로 끝나게 된다.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물신이 생명의 왜곡된 형태임을 간과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본다. 어둠속에서 스스로를 고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개개의 생명체가 자신을 거대한 생명의 흐름의 한 위상에서 응결된 범생명의 한 고리로서 파악하고, 포복을 통해서 파악한 밑바닥의 실정을, 생명의 실정을 감연히 이웃에 있는 또 하나의 고리에 알리게 될 때, 그리하여 처음에는 어두운 밤을 찢는 목 졸린 외침의 형태를 띠지만, 차츰 조용한 속삭임으로, 여기저기의 수군거림으로, 너와 나의 웅성거림으로, 마침내 집단적인 함성으로 울려 퍼질 때, 밤의 지배는 처음에는 완강히 버티는 듯하지만, 결국은 천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개요 4~5쪽**

또한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민중을 정의하고 이들의 전통적 지혜와 창조적 노동속에 살아 있는 생명에 대한 보편적 사랑과 협동적 생산과 생존에 뿌리내린 영성적이며 공동체적인 세계관의 확립을 통해 대전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 질서 안에서 그 속에서는 인간다운 삶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광범한 대중 집단, 곧 ‘민중’이 나타난다. 민중이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고립시켜 지칭하는 사회적 계급이라기보다 왜곡된 역사 속에서 모든 형태의 억압자들과 실천적으로 대결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피억압자들의 세력 일반을 지칭하는 말이다. 거기에는 고전적인 계급의 도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노동자, 농민, 도시영세민, 양심적인 자본가, 지식인, 성직자 및 차별받고 냉대 받는 인종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중은 제국주의 및 냉전의 질서에 시달리고 그에 대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제3세계의 실체이다. 그들은 새로운 세계, 빛과 생명을 약속 받은 인간들이다.”

개요 11쪽

“이 악순환의 혁명적 극복을 기치로 내세우는 전투적 혁명집단은 민중을 증오와 생명 파괴, 학살과 집단보복의 악순환 속으로 또다시 밀어 넣는다. 국가의 통치 역량은 국민의 복지와 생명의 본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장시키는 데에 기울여지는 대신, 제국주의적인 외국산업 군사 자본과 결탁하여 민중의 수탈에 동원되거나 혁명의 수술과 피비린내 나는 숙청작업에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민중의 삶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전체적 생존에 필요한 것은 이윤의 보전이나 권력의 유지나 혁명의 수출이 아니라 생명의 본성을 지키고, 협동적 생존의 확장으로 사회적 해방을

수행하려는 각성된 의식과 단결된 행동이다. 필요한 것은 유럽적인 자본주의, 제국주의, 신식민주의와 그와 결탁한 소수매판 군부세력 대 유럽적인 공산주의, 사회제국주의, 패권주의와 그에 지원받는 무장폭력 혁명집단의 폭력대결의 악순환, 그 피비린내 나는 상대연기(相對緣起)가 아니라, 모든 생명, 일체인간, 특히 제3세계 민중자신의 전통적 지혜와 창조적 노동 속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 보편적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 그리고 그 다양한 협동적 생산 및 생존의 전통에 단단히 뿌리내린 영성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새로운 세계관 확립과 그러한 생명의 세계관에 일치한 전 사회적, 전우주적인 다양한 협동적 생존의 확장운동이다” **개요 10-11쪽**

특히 생명운동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이 아니라 중도의 길임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그것이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모든 사람 속에 활동하는 반생명적인 경향을 반대하고 모든 것 모든 사람 속에 숨은 채 드러나는 생명의 씨앗을 꽃피우는 길이자 변혁운동이라고 주창하고 있다.

“생명의 진리는 중도다. 그것은 양쪽 가장자리를 떠나면서도 가운데가 아니다. (離邊非中), 그것은 모두(畵)이며, 모든 것이 생명의 씨앗임(處處皆佛)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실천(慈悲行)이다. 제3세계 민중운동서의 생명운동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다 같이 떠나면서도 그 중간 길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것, 어떤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모든 사람 속에 활동하는 반생명적 경향을 반대하고 모든 것, 모든 사람 속에 숨은 채 드러나는 생명의 씨앗을 현실적으로 꽃피우는 일이다. 절충이나 셋길은 이 운동과 인연이 없다. 제3세계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모든 인종과 나아가 모든 유정, 무정(有情, 無情)의 생명체와 존재들 속에 생생히 살아계신 영원무궁한 총체적 생명이 이 죽음의 시대에 있어 그 생명의 참된 담지자이며 그 실천적 전위인 민중이 지금 여기 협동적으로 그러나 다양하고 개성 있게, 확장적으로 그러나 진취성 있게 과학적으로 일체의 생명파괴에 저항하며 서로 존중과 사랑으로서 공동체적 삶을 건설함에 의하여 모든 적대적인 또는 다양한 기존의 이데올로기와 물신의 지배아래 있는 생명이 있는 그대로의 체제 속에서 스스로 창조하고 스스로 해방하고 반생명에 저항하다 죽고 다시 부활하여 스스로 확장함으로써 자신을 변화시키고 체제자체의 역사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철저히 소멸시킬 전면적인 부활과 해방과 개혁을 가져오는 변혁운동이며 동시에 자비와 사랑의 운동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요는 ‘활동가들이 민중으로 살면서 민중들과 호흡하며 현실을 극복하기보다는 외국으로부터 배운 매판적 급진적 지식을 가지고 몇 가지 상황적 인식에 빠져 민중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민중의 잠재력을 불신임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지식인들만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독단적 아집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개요의 독자는 지식인과 활

동가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문서는 생명운동에 있어 민중을 주인공으로 하여 나아갈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

“우리는 민중을 당면한 피압박 상태의 피해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에 억압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민족적 현실의 주체자로 등장할 중심 세력이며 그 해방의 주도적 이념의 실질적인 담지자임을 깨달아야 한다. 역사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의 모순과 주체의 의지이다. 의지는 그 진정한 목표와 그에 이르는 방법이 모순 없이 통합되었을 때 비로소 힘을 발휘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의 시점에서 주체적 의지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가? 전 세계적으로 전사회적으로 허무하게 짓밟히고 시들어가는 생명을 되살려내는 일이다. 악마에의 저항에서 악마 편에 가담하는 자에 못지않게 악마와 맞서서 저항하는 쪽도 생명자체를 추상적 이념과 소외된 욕망에 종속시킬 위험이 크다. 그러나 목적을 망각한 저항은 반드시 저항 자체를 배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저항은 무엇보다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은 목적을 배반하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 민중적 합법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개요 14쪽**

본문과 각론의 경우 책에 실리지 않았고 본문의 경우 한국사회의 구체적 현상에 대한 해설과 서술로 채워져 있다. 각론의 경우 각 계층들이 어떻게 생명운동에 위치하고 활동가들이 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조직하며 연대해야 하는지 등에 구체적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과 각론이 책에 실리지 않은 것은 첫째로는 김지하 선생이 썼으나 내용이 책에 심기에 부적합 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만 다른 활동가들이 덧붙였을 수도 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골간은 김지하 선생이 쓰고 부분적으로 수정 가필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이유로는 첫째로는 ‘본문’의 내용과 흐름이 ‘개요’의 내용 및 맥락과 수미일관되게 상응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만 내용상 농촌현실 및 농촌공동체운동, 유기농업, 협동조합, 광산지역 이야기, 어촌이야기 등의 경우는 김지하 선생이 썼다고 생각하기에는 지나치게 세세하고 현장적이다. 당시 박재일, 김현일을 비롯한 원주지역 활동가들이 상당한 지식인들이었고 이들이 농촌과 광산, 어촌을 상대로 활동했던 점을 고려하면 원주활동가들이 썼거나 최소한 상당부분 가필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연유로 김지하 선생도 이 부분을 남녘땅 뱃노래에서 뺀 것이 아닌가 싶다.

본문의 내용 중 특징적인 점은 ‘숨겨진 채로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
- 7) 당시 활동가들은 김영주를 기획위원장으로 김지하가 기획위원을 맡았고, 박재일, 김현일, 홍고광, 김현식 등은 서울대, 정인재는 고려대, 이경국은 중앙대, 김영주와 이한규는 국민대를 중퇴 또는 졸업하였으며 장상순은 서라벌예대를 나와 신상옥 감독 밑에서 조감독을 맡다가 내려온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박양혁과 김상범도 가정사정으로 대학진학을 못했지만 치열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6-70년대 학생운동 또는 사회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품앗이’나 ‘두레’, ‘대동굿’, ‘씻김굿’ 등의 문화에서 생명경시 및 생명파괴에 대응하는 처방을 찾을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영성’과 ‘수행’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숨겨진 채로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민중적 세계관, 생명의 세계관을 중심 기초로 하여 역학(易學), 대승불교와 선사상, 노장철학과 주체적으로 수용된 기독교 신비사상, 동학과 증산교의 가르침을 배경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의 신비와 친구약의 생명의 복음의 인도를 받아 현대 서양철학의 생물학적 전환, 물리학 및 제 과학사상의 혁신적인 변화, 기술의 놀라운 발전성과들과 제반 민중운동의 역사적 경험들을 새로운 비판적 조명아래 통일하여 자각적, 창조적으로 심화 확대시키는 곳으로부터 그러한 민중적 세계관에 입각한 전민중적, 전사회적, 전인류적, 전생명계적인 협동적 생존의 확장과 영성적이면서 공동체적인 새로운 생존방식을 창조 발전시키는 운동을 제3세계 민중운동과의 공고한 연대 속에서 수행하는 곳으로부터 한국 사회의 극심한 일체의 생명파괴 현상과 분단 상황에 대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해결책,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본문 16쪽**

“생명의 실상과 정체에 대한 묵상, 독서, 토론과 대화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이웃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그리고 현장 민중의 지혜와 생활과 여러 활동에서 생명에 대한 지혜를 얻어내야 하고, 또 얻어낸 지혜를 실천적 논리로 정식화하여 민중에게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하며 되돌려진 그것이 다시금 민중자신에 의해 재창조 되고 변형되는 과정을 관찰하는 방법을 통해 생명을 공부하고 체득해야 할 것이다. **본문 18쪽**

특히 각론의 경우 계층을 8항목으로 나누고 있는데 농민 및 광산노동자 이야기와 어민이야기가 등장하고 꽤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원주교구의 특징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노동자의 경우 이농 및 도시 빈민과 서비스 노동자항목과 산업노동자 일반항목, 그리고 광산노동자를 나누었다는 점이다. 특히 여성, 청소년을 독자 항목으로 설정한 것은 한국에서 여성운동과 청소년운동이 등장한 것이 문서 작성 시점보다 훨씬 뒤의 일인 점을 고려하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 아니었나 싶다. 또한 여덟 번째에 ‘대학생, 지식인, 문화관계종사자, 종교인’을 통으로 넣은 것이 흥미롭다. 그리고 아홉 번째 항목으로 ‘타 계층과의 연대’ 항목을 넣은 것은 생명운동이 민중을 총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과 같이 민중의 운명이 전변무상하고 모든 인간의 생존형식이 덧없이 바뀌는 시대, 사회에서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을 고립적인 자기 완결성을 가진 폐쇄적 단위로 인식하는 것은 오류다. 물론 특수성과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구되는 것은 민중의 총체적 운명에 대한 민중 전체의 총체적 통일적 협동적인 운동

의 인식이며 그 조직 실천이다” **각론 41-42쪽**

특히 열 번째 항목에 민족통일항목을 넣어서 생명운동이 통일운동에 대해 갖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일상적 협동운동이 민주화운동이고 협동운동이 확대발전심화를 통해 독재 독점공토와 국제적 패권지배를 극복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민중주체의 확장적 통일운동을 실천한다.’고 되어 있어 생명운동으로서의 협동운동이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을 수렴하는 민주주의 학교이자 생명운동의 중심운동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것에 바탕 한 통일 운동은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길임을 암시하고 있다.

“생명운동은 일상적 민중 협동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과 실천적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민중 협동운동의 확대 발전 심화를 통해서 비민주적 독재 독점 공토와 국제적 패권 지배를 극복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민중 주체의 살아있는, 역동적, 지속적 확장적 민족통일 운동을 실천한다.

따라서 이제까지 논의해온 바와 같이 전면적 생명파괴를 극복하기 위한 생명운동 즉,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총체적 통일적 민중운동은 바로, 그 지속적 발전과 그 확장적 성숙을 통해서 일관하게 바로 민중주체의 평화적인 민족통일 운동인 것이다.” **각론 43~44쪽**

하지만 문서 작성 주체와 과정 및 용도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특히 이 문서가 단순히 담론이 아니라 당시 시대상황에 따라 활동가들의 의식화와 지침적 성격의 문서형식인 팸플릿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윤독하며 문서를 완성해 갔다는 진술로 보아 그러한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것은 한국현대사에서 생명사상의 잉태와 출발과 관련되어 있다.

2) 문서의 역사적 의미

‘문서’는 포괄적 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 생명사상과 운동으로의 전환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적인 키워드는 제목에 드러나 있듯이 ‘생명의 세계관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며 개요는 생명의 세계관으로의 인식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본문은 당시 세계와 한국사회의 생명경시와 생명파괴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한 활동가들이 취해야 할 지침형태로 되어 있으며, 각론은 각 부분운동과 생명운동이 취해야 할 구체적 방침으로 정리되어 있다.

문서가 이러한 구성을 가지게 된 이유는 70년대 말까지 원주에서 진행되었던 다양한 영역의 사회운동에 대한 성찰에 기초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지하다시피 6,70년대 원주에서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협동운동(신협, 소협)과 부락개발운동(각종작목반 조직사업, 교육사업, 보건사업, 문화사업등), 광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용협동운동과 소비조합운동, 노동자복지운동이 전개되었으며 한편으로는 박정희 정권에 맞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전개 되었다. 이른바 ‘원주캠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명망가 중심의 운동이 아니라 민중들을 주인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기층조직화와 공동체운동이 한축으로 있었고 또 한축으로 가톨릭과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원주캠프에서는 본 한국사회의 현실은 급속한 산업화과정속에서 생명경시와 생명파괴의 현장이었고 세계사적 성찰 속에서도 그것은 분명하다는 인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농촌에서는 대량생산을 위한 공장식 생산방식의 도입으로 화학재료의 사용으로 자연과 인간이 파괴되고 있었으며 그나마도 생명 파괴적인 산업중심경제관으로 인해 농촌은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또한 광산지역의 경우도 ‘인생막장’이라는 말로 대변하듯, 그리고 80년 사북사태 등으로 드러났듯이 생명파괴의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있었다. 더욱이 민주화운동은 박정희정권에 의해 수많은 희생자를 치르고 있었다. 특히 남북 간의 대립 또한 격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원주캠프에서는 세계사적인식과 역사적 성찰, 한국사회현실에 대한 인식 등에 기초하여 운동의 전환을 생각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10.26과 12.12, 5.18등을 거치면서 신군부의 막가파식 전횡(대령들의 무식한 정치)과 저간의 성찰은 보다 장기적이고 희망의 운동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것이 1981년에 이 문서를 잉태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한국사회의 변혁이 아니라 세계적 변혁의 시야로까지 확대되고 단 시간적인 시간이 아니라 장기 지속적이고 ‘지금여기’의 시간을 분명히 하는 운동과 삶으로 나가자는 시선이자 전환으로 판단된다.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그리고 전 사회적 규모에서 생명의 회복과 생명의 본성에 대한 인식이 요청되고 있으며 생명을 일체의 가치관, 인생관, 사회관, 역사관, 세계관, 우주관의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기존의 모든 과학기술의 성과들을 창조적으로 통합할 것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에 의한 개인 및 사회적 생명의 진정한 부활, 해방이 요구되고 있다. 한 포기의 배추에 있어서의 참된 생명력의 문제로부터 이론 물리학의 “장”의 원리나 철학에서의 범주론과 언표방식에 있어서의 생물학적 전환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그에 입각한 일체 인간과 자연생명계까지를 포함하는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서를 전후해서 원주에서는 동학을 비롯한 생명사상과 운동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향의 수립을 위해 다양한 학습모임과 논의 및 연수가 조직되고 있었으며 그 결과물이 1985년 원주소협의 창립과 이듬해 한 살림농산의 창립, 한 살림선언 등으로 이어지는 맥락과 연계된다. 이 문서에 동학이 언급되긴 하지만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그것은 이 문서 작성시점에서 장 선생을 제외하고는 김지하 선생이나 활동가들은 동학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 생명사상과의 깊은 연관성에 대해 추상적 인식이 아니었나 하는 추측이 든다.⁸⁾

그런데 생명사상의 출발이 언제부터이고 무위당 선생이 언제 어떤 연유로 생명사상으로 전환되었는지도 궁금하지만 - 이 말은 모순이다. 한 사람의 사상은 특정시점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연대기적 사고의 산물일 뿐 실제 진정한 사상이란 그 사람의 삶을 관통하는 것이다 - 그것은 외화와 이름붙이기의 시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무위당 선생의 경우 일생의 삶 자체가 생명사상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것은 이영희 선생님도 동감하시는 것 같다.

“사실 무위당 선생의 생명사상은 어느 시기에 이렇게 전환했다고 하기보다는 그것이 무위당이라는 한 인간의 밑바탕에 깔린 본연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위당 선생이 농민들, 사회문제, 문화방송과의 문제, 교구와의 관계, 정치권력과의 관계 등에 관여하면서 살던 때에도 그 사시던 집의 모습과 살아가시던 모양은 자연 그 자체였어요. 자연에 있는 모습대로 또는 우주의 생성원리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게 생명의 본연의 모습이니까, 그 속에서 살아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기보다 처음부터 무위당 선생은 생명사상에 근거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상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이지요. 농민을 돕는 것도 생명사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재해에 의해서 생명이 뭉개졌고 그걸 정권이나 사회, 제도가 도와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본 무위당 선생이 공감하고 같은 삶을 취한다고 할 때 그게 다 생명사상의 발현이었다고 봅니다.”⁹⁾

8) 김지하는 회고록에서 1981년 12월12일 출옥 후 이듬해초에 로터스상을 수상한 직후, 장선생을 중심으로 동학공부를 시작했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장선생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 그것이 또한 동학과 생명론이었다. 원주캠프는 걸로 보아 전혀 다름없었고 사회개발위원회 활동도 여전했지만 내실은 이미 그 중심이 바뀌어 버렸다. 차원변화였다. 따라서 새로운 각비(覺非, 과거의 잘못을 깨달음 또는 바꿈)와 새로운 학습(새 차원에의 적응)이 필요한 때였다. 이때부터 우리는 많은 속앓이를 겪어야만 되었다. 괴로웠지만 우리는 페야르 드 샤르댕이나 그레고리 베이트슨 등에게서 우리자신에 대한 해명을 얻을 수 있었다. 생명이 생명을 설명했다.” 『흰그늘의 길3』 45쪽

이외에도 앞에서 이야기 한대로 지속적인 학습모임과 세미나, 해외연수 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 대한 연구는 하나의 사상의 정립과 실천방안의 도출과정에 대한 또 하나의 연구주제이기도 하다.

9)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밖에 있으면서 안에 있던 분」, 이영희 전표열 대담, 133쪽

3. 문서와 생명운동의 현재에 대한 성찰

이 문서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현재의 생명운동 진영과 활동가들이 생명사상과 운동에 대한 '당시만큼 포괄적 인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인식과 실천으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들었다. 만일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이 문서는 '역사속의 한 문서'로 정리되고 어딘가에 기록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문서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세월은 이미 30년이나 지났다. 30년 전과 같은 것(현실, 문제인식)은 무엇이고 다른 것(운동의 주체, 상황, 조건)은 무엇인가? 30년 전의 문제인식과 실천방향이 오늘날과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어도 현재의 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쳐왔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듯하다. 30년 전에 비해 생명운동의 지평은 넓어졌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생명파괴와 생명경시의 풍조는 더욱 심화 된 것이 아닌가 싶다. 하루도 끊이지 않는 전쟁과 분쟁 소식에 더해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듯이 핵발전소와 핵무기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다. 세계적인 기아인구는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으며 식량위기는 더해가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가 경쟁과 탐욕의 죽임의 문명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죽임의 문명으로 가득 찬 도시 인구는 늘어왔고¹⁰⁾, 인간의 식(食) 문화는 지난 구제역 사태에서 보듯이 생명파괴형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 온 산하가 4대강사업이다, 골프장이다, 신도시다, 새로운 도로와 철도를 뚫는다 해서 죽임의 개발 사업이 한창이다. 우리는 배불리 먹으며 비만인구가 늘어나는데도 아직도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웃의 빈곤을 보고 나누거나 해결방안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은근슬쩍 국가와 제도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활동이 혹시 경영주의에 빠져 있지 않은지....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주장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우리의 삶과 내면을 돌아보기 전에 남 탓이나 하고 있지 않는지..... 성찰의 문제이다.

10) “서울의 변영은 죽은 변영입니다. 풀 한포기의 아름다움이란 우주전체의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도시보다도 한포기의 백합쪽이라고 하는 성서의 언어를 젊었을 때는 지나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진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명당의 스승인 서산대사의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萬國都城如蟻蛭(만국도성여의질)

天家豪傑若醯鷄(천가호걸약혜계)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개미의 집이며, 거기에 모이는 호걸도 식초항아리에 모이는 파리와 같은 것, 자신은 창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달빛을 맞으며 술바람 소리를 듣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나라한알속의 우주』, 「풀한포기도 공경으로」, 황필호 대담, 녹색평론에서 인용

결국 여전히 생명의 세계관으로의 전환과 삶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일상적 삶에서의 협동적 생존을 어떻게 확장하고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는 결국 내안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다시논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향기와 울림이 있는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인가? 내 삶을 생명공동체적 삶으로 바꾸지 않고는 이웃과 손잡을 수 없으며 마을의 삶을 바꿀 수 없고 지역을 공동체로 바꿀 수 없다.

문서의 본문 끝에는 오늘날 생명운동이 여전히 견지해야 할 태도들을 제시하고 있다.

“민중운동 특히 생명과 협동을 가치와 실천의 핵심으로 하는 민중운동은 마땅히 총체적인 연대운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농민회, 노조, 신협, 소협, 노청, 사선 등은 전체적인 운동과정에서 협력과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유관단체들과 긴밀한 정보 교환 및 프로젝트 내용의 동일성과 호흡의 일치를 협의해야 하며 동일한 운동을 동시에 집행토록 제도적 보장과 자금지원 등 여러 문제들의 해결점을 협의하여 찾아야 한다. 생명운동은 또한 사회운동이며 동시에 영성운동이다. 따라서 여러 종교단체와 신구기독교회 및 수도단체나 수양단체들과 협력, 연대가 강화되어야 하고 다른 행동단체나 일반사회단체 및 기구와 연대를 강화하고 이것을 지식인, 청소년, 직업여성, 주부, 소시민, 상인, 군인, 학생, 언론인, 연예인, 실업인, 공무원, 문인, 예술가들 속으로 지속적, 적극적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나아가 외국의 민중운동 및 교회운동, 생명보호운동, 평화운동 등과의 연대강화는 당연한 일이며 생명과 협동의 확장적 총체성이 그대로 요구하는 바이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 조건은 가장 먼저 스스로 우리 자신들의 영성적 차원의 변화, 영적 능력의 증대, 즉 생명에의 귀의, 의식화가 얼마만큼 빛나게 이루어지느냐에 있다.” **본문 21쪽**

늘 그렇듯이 지혜로운 선현들이 있지만 창조는 현실을 사는 후학들의 몫이다.

『한살림선언』과 생명운동

주요섭 (모심과살림연구소)

1. 위기와 열망

예사롭지 않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생명살림한마당이 열리고, 한살림과 생협들의 소금 파동이 간단치 않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를 비롯한 기독교계의 생명밥상운동이 '고기 없는 주일'로 진화한다. 전교조도 채식급식을 제안하고, YWCA는 생명정의운동을 선언했다. 녹색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0년 전 동학당의 그것, 혹은 21세기의 개벽당이 절실한 걸까? [에코토피아 비긴즈]에 나오는 '생존당(survival party)'이 생각한다. 정말 생명당이 필요한 걸까?

이들의 열망은 정치 감각보다 깊고 넓다. 생활의 필요에 머물지 않는다. 단순히 어젠다의 문제가 아니다. 생명감각이다. 생명감각은 존재에 대한 근원적 의문이다. 발밑 생존의 바탕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시장에서만이 아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도 경쟁, 경쟁, 경쟁이다. 돈의 노예, 임금노동의 노예,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결단은 이루어지고 있다. 12시간 임금노동으로부터의 해방, 도시문명으로부터의 탈출, 결단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념이 아니라 생명의 결단이다. 생존, 생태, 생활의 결단이다.

오늘의 문명과 시스템은 기본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는 문제가 기본이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기본이다. 후쿠시마 이후, 구제역 이후 먹는 것이 불안하다. 원자력과 전기에 의존하는 현대 문명이 불안하다.

2011년 2월 올해 초 세네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의 주제는 '시스템과 문명의 위기'였다. MB 탓만이 아니다. 생태위기와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산업문명에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게 하였다. 빈곤과 차별의 대안이 진보 패러다임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의 재분배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다.

세계는 3.11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전환이다. 이미 시작되었다. 의식의 전환, 생활양식의 전환, 체제의 전환.

물론 생명운동은 여전히 소수다. 하지만 생명운동이 문자로 처음 등장한 지 30

년, 한살림모임이 생명의 세계관과 새로운 생활양식을 선언한 지 22년, 생명운동은 보통명사가 되었다. 2011년 한국의 대표적인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국어사전에서 '생명운동'이 뜬다. 네이버 국어사전이 이렇게 설명한다.

생명운동(生命運動) [명사] 1. [사회] 생명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죽어 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회적 운동. 2. [사회] 환경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오염된 자연을 깨끗한 상태로 되돌리고자 하는 사회적 운동.

그렇 듯하다. “생명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여”라는 말은 ‘생명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탕으로’라고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입각한 사회적 실천이 곧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지배적 담론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하지만 부글부글 대전환의 징후가 끓어오르고 있다. 인터넷 국어사전의 생명운동이 작은 희망처럼 반갑다. “새로운 질서는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생겨난다.”

2. 1989년과 2011년 사이

“산업문명이 온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면서 급속히 생명을 파괴해가고 있는 오늘의 죽음의 상황에 대하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요청은 바로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이에 입각한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입니다.”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나라는 이 산업주의의 횡포가 특별히 심한 지역이며 이의 극복에 대한 요청도 민족통일에 대한 요청과 더불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살림모임은 이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창립되었습니다.”

-중략-

“<한살림모임>은 앞으로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이에 입각한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를 위한 대중적 협동운동을 구체적이고도 광범위하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죽임당하는 전 생명계를 살려내자는 이 한살림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¹¹⁾

『한살림선언』은 반(反)산업문명선언이다. 1989년 당시 절정의 산업화시대에 정면으로, 근본적으로 산업화에 맞선다. 경쟁과 효율의 논리에 대해 공생과 호혜의 대안을 제시한다. 생명의 세계관에 입각한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 반대운동이 아니라 창조운동이다. 또 생활운동으로 출발하되 사회운동으로 확산하고 정신문화운동으로 심화한다.

11) 1989년 11월 한살림모임 창립을 알리기 위해 작성된 <한살림모임은 이렇게 창립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홍보자료의 일부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살림선언』은 장일순, 김지하, 박재일, 최혜성(대표집필)이 학습모임과 토론을 통해 정리하여 한살림모임 창립에 즈음해 발표되었다.

실천방안도 명쾌하다. 한살림모임 창립 홍보문건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는 곧 협동운동이다. 1982년 발표된 이른바 원주보고서의 제목에 이미 그 방향은 정해져있었는지도 모른다.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 새로운 생활양식의 열쇠말은 분명 '협동'이다.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 소비자와 소비자가 공생하고 협동함으로써 생명의 본성을 실현하고 또 확장한다. '한 살림'이란 기본적으로 '함께 살기'인 것이다.

1989년 10월 29일 『한살림선언』 발표 일 주일 후 벌어질 세계사적 사변, 즉 베를린장벽을 예감하지는 못했지만, 『한살림선언』은 2011년 세계사회포럼의 주제처럼 '시스템과 문명의 위기'를 경고하며, 새로운 문명을 선언한다. 생명의 세계관으로의 전환, 새로운 생활양식으로의 전환, 그리하여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천명한다.

그리고 2011년, 경고는 발등의 불이 되었고 전환의 기획은 현실의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 모양은 사뭇 다르다.

	1989년	2011년
한국경제의 단계	고성장 산업화	저성장 後산업화
한국사회의 성격	산업사회(국가 주도 산업자본주의)	지식정보사회(지식·정보·에코 자본주의)
소비 패턴	대중소비시대 초입	後대중소비시대 초입
사회적 권리	절대 미비	여성참여, 사회복지 상대적 확대
환경의식	환경의식 부재	생태위기의 심화와 환경의식 고양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	성장 숭배	성장에 대한 회의
노동	산업노동·완전고용시대	구조화된 불안정 노동
농업	이농의 시대	귀농의 시대
정치	쑤독재 민주화초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자본의 성격	국가자본주의(일국적)	신자유주의(초국적)
남북관계	단절	제한적 교류
노동과 자본의 관계	산업자본 vs 노동	글로벌대기업·정부 vs 비정규직, 실업자

20년 사이 그세 세상은 많이 변화했다. 한국사회의 삶과 경험에 의거해 발표된 『한살림선언』은 무엇보다 산업문명에 절망했다. 인격과 자연 대신 자본(돈)과 계급(이념)이 지배하는 극단적 대결체제에 좌절했다. 그리고 그 폐해는 산업화의 폐

해로 드러났다. 유럽의 경우 대안적 세계관과 운동은 '산업화 이후'였으나 한국 생명운동의 그것은 '산업화 이후'를 예감하면서도 직접적으로는 '산업화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 변화는 한국사회를 통해서도 실감할 수 있다.

20년 후 한국사회도 지구촌도 산업화 이후, 자본주의 이후를 고민하게 되었다. 20년 전과 비교해 사회적 변화의 핵심은 무엇일까?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 미쳤을까? 그것은 아마도 자본주의의 글로벌 패권(냉전체제 해소)과 정보기술의 발전, 생태위기의 가속화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부정적으로건 긍정적으로건 세계화로 수렴된다. 정보기술과 자본이 밀고 당기며 지구촌을 하나의 세계로 만들었다. 생태위기는 지구적 관점과 행동을 강제하고 역설적으로 국가와 기업이라는 글로벌 행위 주체에게 희생의 기회를 주었다.

1989년과 2011년 사이, 변화를 통찰하며 『한살림선언』을 다시 읽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선 이념, 정신, 운동적 뿌리를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시대변화에 걸맞는 노선과 전략을 재검토 하여야 한다. 요컨대 사상, 이론, 운동적 정체성과 초심을 유지하면서, 2011년 시대가 요구하는 생명운동의 길을 탐색하고 전략을 기획해야 한다.

3. 『한살림선언』으로 본 생명운동¹²⁾

『한살림선언』에서 '생명운동'은 딱 한 번 뿐이다. 한살림운동이 곧 생명운동이기 때문이다. 『한살림선언』은 '한살림'은 "생명의 이념이자 활동"이라고 논술한다. 요컨대 한살림은 생명의 존재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¹³⁾ 그러므로 생명운동이란 곧 한살림운동인 것이다. 다시 말해 『한살림선언』은 한살림의 문법으로 펼쳐놓은 생명운동의 이념과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한살림선언』은 1981년과 1982년 원주보고서와 김지하시인의 연설문에서 태동한 생명담론의 진화과정과 1986년 도·농간 협동, 생산자·소비자간 협동운동의 새로운 실험을 위해 만들어진 한살림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후 전개될

12) 3장은 『죽임의 문명에서 살림의 문명으로-한살림선언 다시읽기(2011)』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였다.

13) 정확히 말하면 '한'이 살림(=생명활동)의 존재양식이라고 말해야 한다. 하나(一)이면서 여럿(多)이고 동시에 모두(全)이며, 또한 가운데(中)인 여러 의미를 동시에 지닌 '한'이라는 순 우리말 안에 생명의 존재양식이 담겨져 있는 셈이다. 한자말로는 전일(全一), 영어로는 holistic으로 옮겨진다.

한살림운동의 성격과 방향, 큰 틀을 제시하고 있다. 그 점은 『한살림선언』이 밝히는 『한살림선언』 작성의 목적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아주 간명하다. 하나는 '전일적 생명의 세계관의 확립',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가 그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사회적 활동이 다른 아닌 '한살림운동', 혹은 '생명운동'인 것이다.¹⁴⁾

바로 그 한살림운동의 전체상은 『한살림선언』 5장 '한살림'에 압축적으로 그려져 있다. 그 내용 역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한살림(생명의 활동)에 대한 깨달음이다. 즉 삶과 세계에 대한 우주적·생태적·공동체적 각성이다. '생명의 세계관 확립'이 그것이다.

둘째, 한살림(생명의 이념)의 실천이다. 다시 그것은 내면의 실천, 생활의 실천, 그리고 사회적 실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것이 곧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이다.

한살림에 대한 깨달음과 실천의 결과는 생명(가치)의 전일적 실현이다. 그것은 한살림 세상 그 자체, 혹은 '살림의 문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한살림선언』은 그것을 '생명의 통일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요컨대 한살림운동, 즉 생명운동은 생명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양식과 문명을 창조하려는 사회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1) 생명의 세계관 확립

『한살림선언』은 위기의 원인도 새로운 문명도 세계관의 전환에 있다고 강조한다. 오늘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태계 파괴나 빈곤과 불평등도 근본적으로는 산업문명의 '낡은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은 세계관의 재정립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 열쇠말이 바로 '생명' 혹은 '한살림'인 것이다.

『한살림선언』은 각성, 즉 깨달음의 내용은 세 가지이다. 우주적 각성과 생태적

14) 『한살림선언』 작성 과정에 대해서 앞의 홍보자료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죽임당하는 전 생명계를 되살리자는 <한살림>의 지속적이고도 폭넓은 전개를 위하여 1988년 6월 25일 결성된 <(가칭)한살림연구회 준비모임>은 다섯 차례의 준비모임을 통하여 오늘의 죽임의 상황을 철저히 진단 반성하고 대안을 찾으며 그 실천의 방도를 세우는 것이 한 살림의 우선과제임을 확인하고 1989년 1월 <한살림모임 창립준비위원회>로 그 이름을 바꾸어 한 살림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한 <한살림모임>의 창립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모임의 창립에 앞서 다양한 시각과 행동양식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할 것과 한살림의 내용 및 방향을 함께 찾기 위해 <한살림공부모임>을 열었으며 11회에 걸친 공부모임과 4차례에 걸친 자체 토론회를 통하여 지금 전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고 생명을 파괴해 가고 있는 산업문명의 모습과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 산업주의의 횡포와 특히 심한 지역임을 알게 되어 이의 극복을 위해 1989년 10월 29일 <한살림모임>을 창립하였습니다.”

각성, 그리고 공동체적 각성이 그것이다. 이는 각각 천, 지, 인 삼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생명'의 앞머리에, '살림'의 앞머리에 늘상 붙어있는 '전일(全一)'과 '한'의 구체적인 내용인 셈이다.

첫째, 생명에 대한 '우주적 각성'이다. 『한살림선언』에 따르면, 인간은 무궁히 자라나는 우주라는 생명나무의 한 가지 끝에 맺힌 작은 열매에 지나지 않다. 하지만 거꾸로 새로운 가지가 뻗어나는 마디가 되기도 한다. 스스로 생명세계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각각 모든 사람이 우주적 진화과정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우주적 그물코이다. 『한살림선언』은 "우주생명은 인간의 마음 안에 잠재해 있고 진화하는 인류의 문화는 우주의 전 시공간을 포괄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주적 각성이란 우주 진화사를 걸쳐 생성되어온 물질·생명·정신의 진화사를 인식하는 것이다. 내 몸 안에, 유전자 안와 세포 안에 숨겨진 우주의 시간적 축적을 깨닫는 것이다.

둘째, 자연에 대한 '생태적 각성'이다. 인간은 어머니 자연의 땃줄을 끊고 독립하였으나 여전히 자연의 일부이다. 그 깨우침이 곧 생태적 각성이다. 그런데 오늘날 산업문명의 물질적 탐욕은 자신의 삶의 터전이자 부모인 지구생태계를 개발의 이름으로 파괴한다. 우주적 각성이나 공동체적 각성도 마찬가지로 '생태적 각성'의 다른 이름은 '생태적 책임'이다. 서구의 녹색운동은 '지구적 책임'이라고 표현한다. 자유의 생명은 생명계 전체에 대한 책임을 통해 완성된다. 기후변화로 지구의 실존을 위협받고 있는 지금, 인류는 지구생명의 운명을 걸머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각성'이다. 인간이 자연을 떠나서 생존할 수 없듯이 사회를 떠나서 살 수도 없다. 인간은 사회라는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생을 마감한다. 그런데 산업·자본주의 문명은 인간에게 돈만 있으면 사회와 독립해 살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다. 오늘날 우리는 돈 놓고 돈 먹기의 투전장, 상대를 쓰러뜨려야만 생존하는 무한경쟁의 격투기장에서 살고 있다. 적자생존보다 더한 강자생존의 시대이다. 그런데 새로운 진화론은 경쟁보다 공생과 협동이 진화의 동력이라고 말한다. 생명세계의 본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서도 현대 사회의 병적인 경쟁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공동체성의 회복과 공동체의 재구성이 절실하다. "낭비보다는 검약, 경쟁보다는 협력, 물질적 성장보다는 정신적 성숙, 이기보다는 공생, 자기주장보다 사회정의, 분열보다는 통일을 지향하는 참다운 공동체적 각성"이 요청되고 있다고 『한살림선언』은 호소한다.

2)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

인지과학자 바렐라와 마투라는 인식의 나무라는 책에서 "생명과정은 '삶의 과

정'이면서 '함의 과정'이다"라고 말한다. 각성은 곧 생명활동(생활)을 재창조하는 힘이다. 그런 점에서 각성과 창조는 동시적 과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생활 '양식'이라고 말한 것은 그것이 사회적이라는 의미이다. 나의 생활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 사회적 흐름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양식의 사전적 의미도 "어떤 사회나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생활에 대한 인식이나 생활하는 방식"이다.

생활은 사람의 생명활동이다. 생활양식은 보통 '생산'양식과 비교되며 이때의 생활양식은 주로 '소비'양식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한살림선언』의 이해는 다르다. 여기서 생활양식은 생산양식과 소비양식, 그리고 교환양식까지를 아우르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¹⁵⁾

생태계의 먹이연쇄, 즉 생산자(녹색식물)-1차 소비자(초식동물)-2차소비자(육식동물)-분해자(미생물)-영양물(토양)-생산자로 이어지는 생명활동의 순환과정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사회경제적 순환과정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생산-유통(교환)-소비-폐기(재생). 이 과정에서 생활은 주로 소비로 받아들여지지만, 실제로는 생산에서 재생에 이르는 전 과정이 생명활동이고 생명과정이다. 그런데 산업·자본주의는 소비된 쓰레기를 '폐기'함으로써 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어버렸다. 결국 자연파괴, 생명파괴가 일어나는 것이다.

'생활양식'이란 이런 의미에서 '삶의 양식'의 총체라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을 일러 문명이라 말해도 좋을 것이다. 대안문명에 천착해온 송희식은 "문명은 시공간적으로 구별되는 '삶의 양식'의 총체"라고 말한다.¹⁶⁾ 그렇다면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는 곧 새문명운동인 것이다.

그 과정 역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수양활동, 생활문화활동, 사회실천활동이 그것이다. 이는 각각 우주적 각성과 생태적 각성과 공동체적 각성에 대응한다.

첫째, 자기실현을 위한 '생활수양활동'. 일종의 수행 혹은 깨달음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전일적 생명을 모시고 있는 존재라면 자기실현이란 자기 안의 우주·생태·사회적 생명을 길러 꽃피워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한살림'에 대한 열망으로 생명세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기실현은 "자아와 공동체와 생태계의 공진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는 『한살림선언』의 논술은 적확하다. 물론 '공진화'는 숨을 쉬고 밥을 먹는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종교인들이 밥을 먹을 때나 어떤 일을 행할 때 묵상하듯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인식, 가치, 양식을 지향하는 '생활문화활동'. 협동을 열쇠말로 하

15) 무크지 『한살림(2000)』 좌담회2의 박재일의 언급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16) 송희식, 자본주의의 우물을 벗어난 문명사(1995)

는 새로운 생활만들기 라고 할 수 있다. 『한살림선언』은 말한다. “그리하여 각성된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이웃과 협동하면서 공생하고 생태계와 균형되고 조화스러운 생활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기초해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새로운 생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해월 최시형의 말처럼 깨달은 사람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오르고 향기가 느껴진다. 경제가치 대신 생명가치를 중심에 놓으면 삶이 바뀐다. 그동안 행복의 잣대가 되었던 아파트평수와 높은 지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기심을 내려놓으면 너그러워지고 경쟁심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진다.

셋째, 생명의 질서를 실현하는 ‘사회실천활동’. 『한살림선언』이 못 다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한살림운동의 궁극적인 지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는 대안적 체제의 전망 속에서 완성된다. 생명질서, 혹은 생명가치의 사회적 실현의 함의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한살림선언』은 한살림의 사회실천활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짧지만 강력하다. “낡은 기존의 사회·정치·경제 구조와 질서를 생명 질서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싸움도 필요하다. 사회적 분열과 경제적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권력과, 실업과 주기적 불황을 유발하고 생태적 균형을 파괴하는 반생명적 경제권력에 맞서야 한다. 새로운 시스템과 문명의 창조를 위한 사랑의 투쟁, 평화의 투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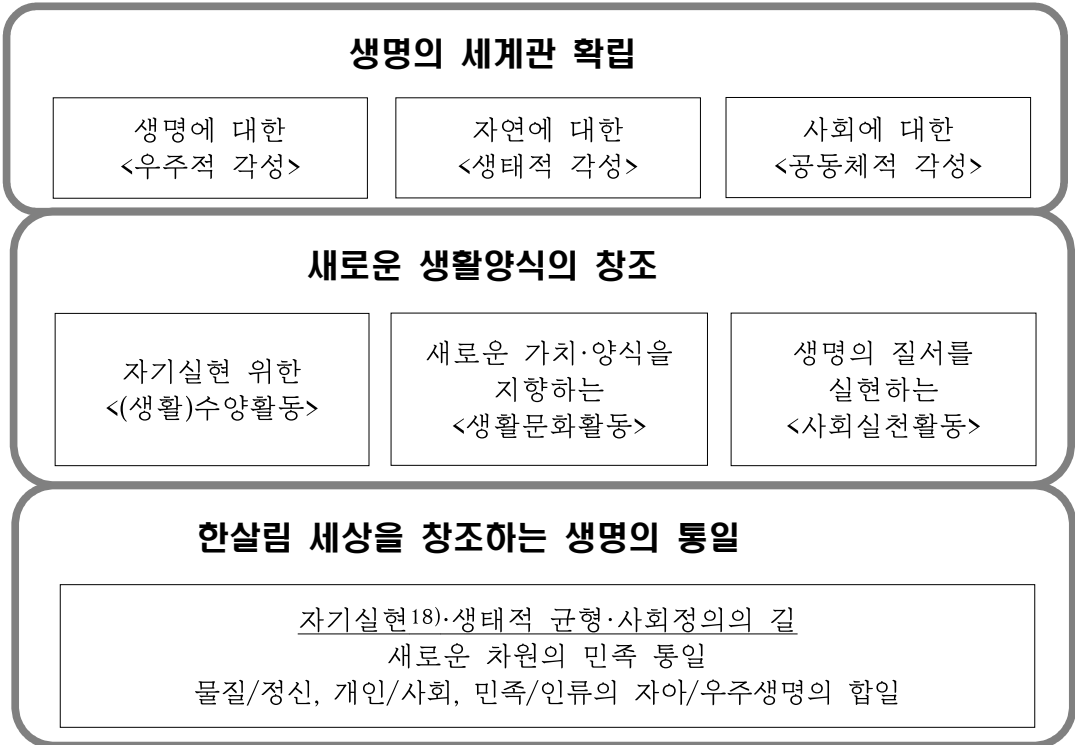
3) 한살림 세상을 위하여

우주적 각성, 생태적 각성, 공동체적 각성을 바탕으로 생명의 세계관을 확립한다. 이에 기초하여 첫째 한살림정신운동(수양활동), 둘째 한살림생활운동(생활문화활동), 셋째 한살림사회운동(사회실천활동)을 벌여 새로운 생활양식과 문명을 창조한다. 그리고 생명의 대통일을 이루는 새로운 세상을 연다. 이것이 바로 <한살림>이다. 21세기의 후천개벽이다.

<한살림>은 우주와 생태계와 인류를 통찰하면서 민족통일을 이루는 것이며, 민족통일을 염원하며 생태적 균형, 사회정의, 자기실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살림선언』에 따르면 진정한 통일운동은 “우리 민족의 통일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류, 전생태계, 전우주생명과의 통일을 지향하는 생명운동”이기 때문이다.¹⁷⁾

17) ‘통일(統一)’은 절실한 민족적 과제이기도 하지만 철학적 명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하나가 ‘한’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일즉다(一卽多), ‘一’로의 수렴만이 아니라 ‘多’로의 확산이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김지하 시인의 최근 화두는 ‘화엄개벽’이다. 그것은 제 각각 생명의 꽃 한송이 아름답게 피우는 백화제방의 숲이 아닐까?

<한살림세상>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인간에게서는 육체와 정신을, 사회에서는 개인과 공동체를, 생태계에서 자연과 인간을 통일시키며, 이 모든 것을 '우주생명'에 통합하는 대통일을 이루려 한다. 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정도가 될 것이다.



4. 1989년 『한살림선언』이 2011년 우리에게

『한살림선언』은 야심적이다. 공산당선언을 의식하면서 작성되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전해진다. 서구의 녹색운동과 신과학운동과 동학 등 전통사상을 흡수하고 융합한다. 동서고금을 아우른다. 녹색이 생명운동의 서구적 표현이라면, 한살림은 생명운동의 한국적 개념이다.¹⁹⁾ 생명운동(한살림운동)의 이념과 이론을 정립했다. 문명의 전환을 천명하고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를

18) '자아실현'은 '자기실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한살림선언』을 대표 집필한 최혜성 선생이 직접 언급(무위당만인회 소식지)한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용 심리학의 설명이기도 하다.(이부영의 [분석심리학] 참조)

19) 앞의 무크지 한살림의 좌담회1 참조.

제안하고 또 선언한다.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생명의 이념과 활동인 ‘한살림’을 펼친다.”

운동적으로도 치열했다. 한살림모임의 운동적 문제의식은 한살림운동, 즉 생명운동은 생활협동운동과 생명문화운동이라는 두 바퀴로 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산업문명의 쌍생아이기 때문에 동시에 극복되어야 하며 종국적으로 한살림운동은 단순한 먹을거리 운동에 머물지 않고, 세계관, 생활양식, 사회/문명의 전환을 꾀하는 ‘총체적 생명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 당시 한국사회 안에는 남과 북의 대치에 버금가는 충돌이 있었다. 자본주의 성장신화와 사회주의 평등열망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었다. 영성과 생태는 참으로 한가한 이야기였다. 그 와중에서 『한살림선언』은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의 통합이라는 오랜 화두에 하나의 답을 제시한 것이었다. 『한살림선언』은 당시의 한반도,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산업화에 매진했던 남북한 권력과 경제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였다.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 현실 사회주의는 몰락했지만 좌우의 논리는 여전히 여전하다. ‘생명의 중도(中道)’는 오늘의 과제로 남아있다.

새로운 생활양식의 실현으로써 도-농 협동운동은 여전히 유효하다. 더불어 생명의 세계관의 확산과 사회적 실현을 위한 노력 역시 여전히 절실하다.

『한살림선언』은 생명운동의 교과서다. 통찰력과 관점은 2011년의 눈으로도 탁월하다. 『한살림선언』은 동양과 서양, 과학과 철학을 넘나들며 또 통섭한다. 『한살림선언』의 사상적 배경 3가지라고 말해진다. 신과학운동, 녹색운동, 동양의 전통사상과 동학이 그것이다. 『한살림선언』은 우리에게 보다 폭넓고 깊은 공부를 요청한다.

생태주의와 생명의 세계관은 둘이 아니다. 도(道)는 하나요, 서학과 동학으로 학(學)이 다를 뿐이다.

	하늘(천)	땅(지)	사람(인)
생명세계의 범역	우주생명	지구생명	인간생명
차원	시간	공간	인간
세 가지 생태학 ²⁰⁾	정신생태학	환경생태학	사회생태학
세 가지 차원 ²¹⁾	영성·문화적 차원	생태적 차원	사회·공동체적 차원

‘자기실현’, ‘생태적 균형’, ‘사회정의’의 재발견. 20년 전에는 몰랐을 것이다. 사실은 딱 한 줄, 구체적인 언급도 없다. 하지만 이제 한살림은 이 세 가지를 한살

20) 펠릭스 가타리, [세 가지 생태학]

21) 에코빌리지네트워크의 생태마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dimension)

림의 사회적 목표로 우리사회의 비전으로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다. 이미 세계의 대안운동은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보편적 비전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정의롭고 생태적인 사회는 결국 자기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다. ‘자기실현’을 운동적 목표로 가졌다는 것만으로 한살림운동은 탁월하다.

22년에 이미 선언했듯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넘어서야 한다. 아니 이제 명확히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이미 지구촌은 하나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이다. 『한살림선언』은 계획경제와 전체주의를 비판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다. 이제 패권을 장악한 지구자본주의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행동해야 한다. 자본주의라니? 문명사회에서 어떻게 한 사회의 중심가치가 ‘자본=돈’이 될 수 있단 말인가?

5. 『한살림선언』이후 생명운동 담론의 과제

1) 생명운동의 역사: 생명운동 30년, 이제 생명운동도 명실상부(名實相符) 한 세대가 지났다. 하나의 역사가 되었다. 생명담론과 실천의 전사(前史)와 전개과정과 전망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무위당 장일순과 김지하 시인과 더불어, 씨알사상과 불교와 가톨릭과 기독교의 생명평화담론이 검토되고 한살림운동과 더불어 탁발순례와 삼보일배가 엮어져야 한다.²²⁾

2) 생명운동의 명칭: 생명운동 30년, 드디어 세상의 이름을 얻었다. 보통명사가 되었다. 생명살림운동, 생명평화운동, 생명문화운동, 생명공동체운동 등 다양하게

22) 생명담론의 형성에 있어서 <원주보고서>와 함께 1981년 12월에 발표된 김지하 시인의 <창조적 통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로터스상 연설문이 중요하다. 김지하 시인은 1975년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작가예술가회의에서 주는 로터스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투옥중이라 지학순 주교가 상을 보관해오다가 1981년 12월 2일 원주교구 가톨릭센터에서 상을 받게 된다. 이 자리에서는 오스트리아 ‘브루노 크라이스키 인권상위원회가 주는 1981년도 크라이스키 인권상을 동시 수상한다. 아래는 연설문 중 일부이다. 생명담론의 핵심내용이 정확히 드러나 있다(밑줄은 필자).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 과학기술과 정치, 경제, 사회 제도들은 그 자체가 지닌 바 인류와 자연생명의 해방·완성을 위한 본래의 사명과 기능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반대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악마적 경향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참과 죽음의 암흑 한복판에서 그 암흑이 지닌 양면성(兩面性), 암흑의 의미, 그 모순의 신비를 발견함으로써 비참과 죽음의 암흑 그 자체를 그대로 뒤집어 유럽인과 모든 형태의 민중의 적(敵)마저도 포함한 전 인류와 전 생명계에 찬란한 부활을 가져다 줄 세계사적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역사적 책임을 걸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존엄한 생명의 존중과 사랑’이라는 보편 진리를 생활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새롭고도 폭 넓은 세계관을 창출해내야 하며 영성적(靈性的)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새로운 생존양식을 창조해내야 합니다. 인간과 자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에 결정적인 친교와 평화를 성취시킬 생명의 세계관, 생명의 존재양식을 출현시켜야 합니다.”

불리는 생명운동의 뜻과 계통을 정리하고 제 각각 나름대로의 이름(명칭)을 살려야 한다.

3) 생명운동의 관계: 『한살림선언』에는 세 가지 차원의 깨달음에 대응해 세 가지 실천활동방향이 제시된다. 생활수양활동, 생활문화활동, 사회실천활동이 그것이다²³⁾. 그런데 개념과 관계가 분명치 않다. 특히 '생활수양활동'과 '생활문화활동'은 표현도 정의도 헛갈린다. 수양활동의 생활과 문화활동의 생활은 어떻게 다른지, 생활문화활동의 초점은 생활인지 문화인지... 물론 뜻은 분명하다. 전자는 진정한 자기(self)를 찾아가는 수양 혹은 수행, 후자는 공생과 협동의 생활양식. 생명문화운동과 생활협동운동의 관계도 비슷한 맥락이다.

4) 협동운동과 생명운동: 특별히 생명운동과 협동운동과의 관계는 실천적으로도 중요하고 현재적 과제이기도 하다. 사실은 오히려 분명하다. 1982년 원주보고서의 제목, <생명의 세계관과 협동적 생존의 확산>이 시사하듯 생명운동은 협동운동을 통해 실현된다. 그러므로 1989년 『한살림선언』의 목표,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이란 곧 협동적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협동운동은 생명운동의 실천적 바탕이 된다. 한살림의 생명운동은 생활협동운동을 바탕으로 생명사회운동으로 확장되고 생명문화운동으로 심화된다. 그런데 협동(協同)의 의미는 무엇일까? 산업화시대의 협동과 산업화 이후의 협동은 어떤 동일성과 차이점이 있을까? 150년전 산업화 초기의 협동조합과 결사체는 여전히 유효할까?²⁴⁾ 나아가 협동운동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한살림선언』이 말하는 자기실현과 영성은 무엇일까? 협동적 생활양식 속의 자기실현은 어떤 모습일까? 21세기 실명의 '나'가 주인공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시대의 협동은 무엇일까? '대중(mass)'과 '결사체(association)'와 '네트워크(network)'의 공존과 진화의 함의는 무엇일까? 정거장, 마당, 운영틀을 의미하는 '플랫폼(platform)'의 유형은 무슨 뜻일까?

5) 공동체와 생명운동: 어쩌면 시대적 한계인지도 모른다. 협동에 대한 생각과 같은 맥락이다. 20여년 전 생명운동은 산업화에 대한 저항이었다. 동시에 산업화의 위협에 대한 공동체적 대안이었다. 나중에 김지하 시인의 탁월한 감각에 의해 이미 넘어선 문제이긴 하나 한살림의 실천현장에서선 여전히 현실의 문제가 된다. 공

23) <한살림선언 다시읽기>는 이를 각각 한살림정신운동, 한살림생활운동, 한살림사회운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24) 그런 점에서 일본말의 '협동(協働, 같은 목적을 위하여 힘을 합쳐 일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말 사전에는 협동(協同,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함)만 있다.

동체에 대한 전통사회적, 전(前)자본주의적 감각. 공동체는 처음부터 이중적이다. 보살핌의 공동체이면서 억압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공동체에 대한 강조가 자본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지만 봉건적 기제와 문화를 온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이다. 조용필의 노래들처럼 70년대 민중문화운동은 농촌공동체에 대한 향수를 기초로 하고 했다. 그리고 이후의 생명운동의 현장들도... 『한살림선언』은 산업화 이후를 분명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생명운동, 한살림운동의 실천적 목표는 여전히 산업화 이전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생명공동체와 영성공동체의 복원이 절실한 오늘, 새로운 공동체운동의 모형은 무엇일까?

6) 과학기술과 생명운동: 정보기술, 생명공학 기술 등에 대한 생명운동의 답이 필요하다. 인류의 종을 변화시킬 기술들이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다.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생명공학기술, 인식과 활동의 지평을 넓히는 정보기술과 우주기술 등에 대해 생명운동은 어떤 답을 제시할 것인가? 신체의 확장으로써의 스마트폰과 디지털기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SNS와 새로운 인간 공동체의 가능성은? 온라인의 P2P 경제는 새로운 호혜시장?

7) 세계화와 생명운동: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우리는 이미 세계화시대에 살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 생명운동의 대안은 분명 지역이다. 그렇다면 삶의 조건으로의 세계화는 어떻게? 이미 우리는 '세계화'된 문화, 기술, 경제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 GTI(Global Transition Initiative)라는 단체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21세기 인류에게 주어진 세 개의 선택지. 하나는 시장과 국가의 긴장이 시계추처럼 지속되는 전통적 세계, 둘째는 문명의 붕괴 혹은 격리사회(성안과 밖). 세 번째가 전환의 기획이다. 여기에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생태공동체(eco-communalism)과 새로운 지속가능성(new sustainability). 생태공동체는 지역을 지속가능성은 글로벌을 강조한다. "정보·문화의 이동은 극대화하고 물질·에너지의 이동은 최소화하라!"는 어떨까?

8) 체제적 대안과 생명운동: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 그렇다면 생명운동의 체제적 대안은 무엇일까? 시장경제와 공공(국가)경제와 사회경제가 모두 보편적인 경제형태라면 혼합경제 혹은 균형경제일까? 시장시스템과 계획시스템과 협의시스템의 공존 혹은 협의시스템에 기우뚱한 균형일까? 김지하 시인의 슬로건이 생각한다. "호혜를 전면에, 교환을 일상으로, 획기적 재분배를"

9) 문명의 전환과 생명운동, 그리고...: 그리고 생명운동과 새로운 인간상, 생명운동과 영성, 생명운동과 보수, 생명운동과 진보, 새로운 생명운동의 주체들 등등. 새로운 생명운동은 수많은 질문과 의문에 봉착하고 있다. 책임도 크고 할 일도

많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생명운동, 생명운동2.0을 탐색해야 한다. 그렇다. 문명전환이다. 그렇다면 세계관, 생활양식, 그리고 체제의 전환은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문명을 무엇일까? 기후변화와 지구생태계의 변화, 인간성과 몸의 변화, 상상을 뛰어넘는 초고속의 과학기술 발달, TV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절감하는 지구적 삶, 우리는 이미 새로운 문명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후천개벽...

생명운동과 생활협동운동, 역사와 전망

김재겸 (한살림서울생협 상무이사)

1. 생명운동과 생활협동운동의 관계

생명운동의 방향과 세계관의 정립 방향에 대해서 정리한 이른바 원주 보고서(1982년)는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원주 보고서는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오던 협동운동의 맥락과 산업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반생명성을 극복하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 이후, 한살림 선언에서는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이에 입각한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로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치열했던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던 1980년의 상황에서 나온 원주 보고서의 제목이다. 1990년에 발간된 무크지 “한살림” 속 대담(“새로운 삶의 이해와 생활협동운동”)에서 당시 한살림 모임 의장이었던 박재일 선생은 생명운동의 탄생 배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톨릭 농민운동이 구조, 제도, 정책의 개선과 민주화 운동을 위한 활동으로 전개되어 이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운동과 삶의 일치, 자연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람을 이루어내는 데는 미진했습니다.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평가와 반성의 과정을 거쳐 ‘공동체적 삶과 사회의 민주화’라는 큰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강원도 지역의 협동운동에 대하여서도 농업정책이 변화하고 급격한 사회현실의 변화 속에서 마을 규모의 협동운동이 와해되는 현실을 이야기 한다. 결국, 1980년대 들어오면서 반성과 새로운 방향모색을 한 결과 ‘생명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협동적인 삶’을 실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한살림 운동이 시작되던 시기에는 ‘생명문화운동’과 ‘생활협동운동’을 중요한 생명운동의 두 축으로 인식하고 생활협동운동을 전개하는 ‘한살림 공동체 소협’과 생명문화운동을 담당하는 <한살림모임>을 창립하게 된다.

결국, 생명운동이 구상되고 태동되던 시기에서부터 ‘협동운동’은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더불어 운동의 주요한 과제였으며, 생명운동이 현실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전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한국형 생활협동운동의 탄생

우리나라 협동운동의 기원을 따라 올라가면 17~18세기 조선 후기의 '두레'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계'까지 연결할 수도 있고, 일제 강점기 시기의 협동조합 운동을 이야기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생활협동조합 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직거래 운동과 60년대 이후의 협동운동이나 협동조합에서 연원을 찾아보고자 한다.

① 유기농업과 직거래 운동이라는 의미에서 1975년 창립된 정농회를 선각적인 실천의 사례로 들 수 있다. 1975년 정농회는 바른 농업을 실천하는 소수의 농민으로부터 만들어졌다. 바른 농업, 양심적인 농업을 실천 했으며, 조직화 되지는 못했지만 직거래를 시도한 '직거래 운동'의 효시로 볼 수 있다. 농업에 대한 높은 기준과 높은 가격 등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장되지는 못했다.

② 1966년 결성된 가톨릭농민회는 농민의 권익보호 단체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져 왔던 단체이다. 유신과 5공화국 독재 시절 오원춘 사건, 함평고구마 사건, 음성 소몰이 시위 등을 통하여 농업, 농민 문제의 해결과 비민주적 정치 체제와 잘못된 경제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가톨릭농민회가 운동의 전환을 시작한 것은 1982년 무렵부터이다. 제도 및 정책 개선과 민주화 운동을 위한 활동의 방향을 '공동체적 삶과 사회의 민주화'의 방향으로 운동을 전환하게 된다. 1990년에는 "생명과 해방의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생명운동으로서 조직의 정체성을 대내외에 명확하게 하였다.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의 생산자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살림 등 생협의 생산자로서 가톨릭 농민회 회원이 참여한다.

③ 천주교 원주교구와 강원도 소협운동

1964년에는 한국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창립되고, 1965년 6월에 원주교구의 초대 주교로 지학순 주교가 취임하면서 사목지침을 통하여 협동조합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게 된다. 1966년 11월 지학순 주교의 사목지침에 따라 원동성당에서 35명의 조합원으로 원주신협(이사장 장일순)을 조직하였으나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만다. 이후 문막신협, 단구신협, 주문진신협, 삼육신협 등이 만들어지고, 1969년에는 진광학원 부설 협동교육 연구소(설립자: 지학순 주교, 소장: 장화순교장)를 설립한다. 그리고, 1972년에 발생한 남한강 대홍수는 협동운동이 크게 경험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독일 정부에서 지원한 구호자금을 활

용하여, 농촌 지역 등에서 생산협동, 신용협동, 기계 공동 이용, 구매협동 등의 사업을 만들어 낸다.

④ 원주보고서와 협동운동의 해외 사례 연수

이른바 '원주보고서'(삶의 새로운 이해와 협동적 삶의 실천)를 정리하고, 원주캠프가 생명운동으로 운동방향을 잡은 후 1984~5년에는 일본 방문을 진행하게 된다. 일본 방문을 통하여 생협, 직거래 단체, 야마기시회 등 다양한 실천을 하는 단체를 접하게 된다. 이 때 특히 일본의 두 그룹의 이론과 실천에 주목하게 되는데, 생활클럽 생협으로 부터는 공동구입 방법론, 반조직, 예약주문, 물품개발 방식 등을 제휴운동(산지 직거래)를 벌이고 있었던 '쓰고 버리는 시대를 생각하는 회(스테루카이)', 고베지역의 제휴운동 그룹 등으로 부터는 생산자, 소비자의 연대성이나 계약생산, 책임소비의 방식을 배워오게 된다.

⑤ 한국형 협동운동 '농산물 직거래를 중심으로 한 생협'의 구상.

한국형 협동운동의 모델이 탄생하는 데에는 협동운동의 다양한 경험이 그 밑바탕이 되었다. 특히, 원주캠프를 중심으로 한 협동운동의 경험을 통하여 운동을 구체화하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협동조합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반생명적인 생활양식에 대한 문제의식과 일본 협동운동, 직거래 운동의 사례가 접목되면서 생산자-소비자 간의 연대성과 협동조합의 공동구매 방식이 결합된 한국형 생협운동의 모델이 만들어지게 된다.

⑥ 1986년 '한살림 농산'을 문을 열고 직거래를 시작하다

원주소협은 한살림농산에 앞서 창립된 소비자협동조합이다. 또한 같은 시기 안양에서도 안양소협이 창립되게 된다. 이어서 창립된 서울에 창립된 한살림농산은 설립문에서부터 한국형 생협운동의 방향을 담고 있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만나게 하고 친한 사이가 되도록 하여,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이가 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줄여서 과도한 유통마진을 줄이는 직거래활동을 펼쳐서 농산물의 품질이나 수량을 믿을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땅도 살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서로가 믿고 돕는 관계가 되고 모두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 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한살림을 시작하면서 중에서, 1986년)**

3. '원주 협동운동'에서 '생협운동'이 만들어질 때까지

① 소비자협동조합의 태동: 강원도 평창의 신리협동조합(1978년 창립)을 소비자협동조합의 효시로 본다. 생필품을 싸고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신리협동조합을 출발로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24개 소비자협동조합이 생겨났다. 소수의 선진적인 운영 주체에 의해 조합이 운영되었으며, 구판장형 매장 형태로 운영되었다. 89~95년 사이에 대부분의 소비자협동조합이 문을 닫게 된다.

②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 도시에서 지역 생협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 조직인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현재의 생협전국연합회)가 설립된 것은 농촌의 경우보다 4, 5년 늦은 1983년이다. 1970년대에 지역의 신용협동조합 가운데 일부 신협은 지역에 조합원과 주민들을 위해 구판장 성격의 소비자조합 매장을 개설한다. 이후, 신협 속의 소비자조합 등을 모아서 소비자협동조합 중앙회를 만든다.

③ 안양생협: 안양생협 (현재의 바른생협)은 구판장형 생협이 가지고 있던 매장 중심의 공급방식에서 배송공급 방식으로 사업형태를 전환한다. 농산물을 생산자와 계약생산 하기도 하고, 조합원들과 산지 방문을 하는 등 직거래를 시행했다. 조합원에 의한 출자, 이용,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이전의 소비자협동조합과는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1985년 5월 준비회 출범)

④ 원주생협: 원주 캠프가 1980년대 새로운 운동 방향을 설정하고 그 실천으로서 유기농업운동과 도농 직거래를 시작한다. 1985년 6월 원주소비자협동조합(현재의 원주한살림)을 창립하여 농촌지역에서 생산한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을 취급하고 생산자와 직거래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⑤ 1986년 8월에는 경남소비자협동조합(이후 1991년에 경남한살림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1989년에는 한국여성민우회생협이 만들어진다. 한발생협은 1988년에 창립을 하였다.

⑥ 한살림: 1986년 한살림농산을 창립하고 1987년 한살림 가족들의 만남, 생산지 방문, 소비자 지역별 간담회를 거쳐서 1988년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을 창립한다. 그리고 1988년 11월에는 한살림생산자협의회가 창립됨으로써 도농 직거래 확산을 통하여 도시의 생활협동운동, 농촌의 생산공동체 활동을 일으켜 세우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하는 틀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게 된다.

또한, 한살림 모임을 창립하고 1989년에는 『한살림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생활협동운동과 생명문화운동을 양축으로 하는 생명운동에 대한 종합적 구상을 마련하게 된다.

한살림이 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회의의 형태로 결성된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농촌과 광산의 신탁을 비롯한 협동운동의 경험이 공동구입의 한국형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공급, 3일전 주문, 계획 생산 책임 소비 등과 만나면서 영리기업의 형태가 아닌 협동조합을 선택하게 되었다.

둘째, 가톨릭 농민회의 방향전환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유기농업, 직거래 활동을 펼쳐왔던 농민들 중 최성미마을, 한마음공동체 등이 생산자로서 한살림에 참여하게 되고 생산공동체만들기가 운동의 중심의제가 된다.

셋째, 『한살림선언』을 발표하고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의 모토를 제시하는 등을 통하여 생명운동임을 명확히 표명하여 새로운 차원의 운동기획임을 밝혔다.

4.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흐름

우리나라 생협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손을 맞잡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개발, 취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신뢰성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단순한 안전한 먹을거리를 개발 취급한다는 관점을 넘어서 도농간 삶을 연대하는 폭을 넓히고 시장경제를 넘어서는 협의에 의한 생산과 공급의 관점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사회적으로는 농약에 의한 생산농민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잔류농약문제 특히, 다이옥신 잔류 위험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환경호르몬, 유전자조작식품, 광우병, 멜라민 파동 등 식품사고는 시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지게 되고, 대안을 찾는 시민들이 생협의 조합원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이른바 웰빙붐이 일어나게 된다. 이미 우리나라가 대량 소비사회로 들어선 결과이기도 하면서 물품의 구매에서도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생협은 유기농업,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게 되었고, 2002년 이후에는 전년대비 30~40%의 고성장기에 들어서서 사업적 성장과 안정을 이루게 된다.

2008년에는 광우병문제, 멜라민파동 등이 전 사회를 뒤흔들었다. 대형식품사고가 발생하고 세계식품분업 체계 안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나면서 생협은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체계'로서 시민사회에 인식하고 된다. 2010년에는 배추값 파동을 겪게 된다. 기후변화에 의한 농업환경의 변화는 '식량 위기'를 예고하는 것이면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요동치는 결과를 낳았다. 생협 농산물의 가격은 안정적이지만 시장가격은 등락의 폭이 과거에 비해 훨씬 넓은 것이어서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체계가 부각되기도 하였고 야채 등 특정 물품의 과부족을 겪게 되었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생협 조합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식품, 유통자본이 유기농산물을 취급하는 계기가 된다. 유통자본의 유기농산물의 취급은 수입유기농산, 가공품의 급증과 맞물려서 유기농산물 시장의 급속한 확대를 불러일으킨다.

2010년 생협의 총공급고는 5,358억원 이상이고(한살림, 아이쿱, 두레, 민우회 합계), 조합원은 481,920세대를 넘어섰다.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2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생협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총 가구 수 대비 2.4%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표 1> 생협조직의 조직 및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가율	
							'04~'07	'08/'07
공 급 액	한 살 림	70,202	79,403	93,592	108,955	132,598	15.8	21.7
	iCOOP생협연합회	42,813	53,447	73,407	94,220	130,150	30.1	38.1
	두레생협연합회	25,013	28,159	31,707	30,285	36,815	6.6	21.6
	민우회생협	6,607	6,653	7,479	8,604	11,352	9.2	31.9
	기 타	21,651	22,776	18,107	19,882	23,839	-2.8	19.9
	합 계	166,286	190,438	224,292	261,946	334,754	16.4	27.8
조 합 원 수	한 살 림	99,761	115,336	132,787	147,339	170,793	13.9	15.9
	iCOOP생협연합회	31,950	38,908	30,725	34,674	54,660	2.8	57.6
	두레생협연합회	29,856	34,627	37,670	37,157	44,575	7.6	20.0
	민우회생협	11,155	12,077	12,911	14,382	17,187	10.9	19.5
	기 타	31,612	34,078	31,795	33,957	37,420	2.4	10.2
	합 계	204,334	235,026	245,888	267,509	324,635	9.4	21.4

5. 생활협동조합의 분화와 흐름

① 소협중앙회의 실패와 생협의 분화

생협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생협이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은 소협중앙회의 지사무소로 활동을 하거나 임의단체로 활동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소협중앙회는 자연스럽게 생협의 구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93년에는 한살림이 별도의 사단법인을 구성하여 생협중앙회와 별도의 법인체를 구성하게 된다. 소협중앙회의 지사무소로서는 공급규모가 컸고, 결산처리방식 등에서도 법률적 한계지점에 부딪친 것이 원인이었다. 88년부터 96년까지 소협중앙회는 회원 조합과 함께 물류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경영 미숙과 우리밀 사업 실패 등으로 많은 부채를 남기고 정리를 하였다. 중앙회의 물류사업 실패는 결과적으로 생협의 분화를 가져 왔는데 회원조합 중 일부가 수도권사업연합회를 구성하여 물류사업을 하였으며 또 다른 일부는 21세기생협연대를 구성하였다. 이로서 지역생협들은 한살림사업연합, 생협수도권연합회, 21세기생협연대 3개의 사업연합회와 독자물류를 하는 몇 개의 생협이 있는 체제로 변화하게 된다.

② 생협법 제정과 생협의 성장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는 1990년부터 소비자협동조합법 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생협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였고, 1998년 말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생활협동조합운동은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돌입하게 된다. 소매유통업체의 반발도 있었고 취급물품도 농수축산물과 가공품 및 환경제품으로 제한하는 한계는 있었으나, 생협법 제정 이전에 임의단체로 활동하거나 사단법인으로 활동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생협의 사업추진 방식에 맞는 법적인 틀을 갖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③ 두레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는 생협수도권사업연합으로 시작하였다. 바른, 주민, 석왕사, 한우리, 부천YMCA, 안양YMCA, 광명YMCA 등 수도권 지역의 7개 생협들이 물류와 물품개발을 함께하기 위해 사업연합을 구성하였다. 이후 생협수도권사업연합은 2003년 10월부터 2005년까지 소속 조합들이 공통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 연합회는 두레생협연합회로 명칭을 바꿨으며 회원 조합 중 일부가 두레생협으로 개칭을 하였다. 그러나 모(母) 단체의 활동과 연결되어 있거나(YMCA등대생협, 에코생협) 지역 생협으로서 이미 토착화된 이름을 가진 생협들은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현재 17개 회원생협이 가입해 있다.

두레생협연합회는 지역 및 단위 생협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기존 조직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연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두레생협연합회의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단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APnet이라는 단체를 창립하여 민중교역을 하고 있으며, 설탕 생산자들의 지역 자치역량을 높여주는 프로젝트인 네그로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생명운동과 관련하여 두레생협연합회에서 진행한 정체성 토의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 이후 두레생협은 정체성을 "생명가치를 토대로 하고, 어머니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을 무대로 한 운동을 펼쳐내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다. 이후 노동공부모임을 통하여 '지역생명운동 전략 찾기'를 정리하였다. 마포두레생협을 중심으로 돌봄노동두레(워커즈)를 설립하고 두레지원센터를 만들었고, 지역화폐인 선물거래를 시작하고 선물거래 매장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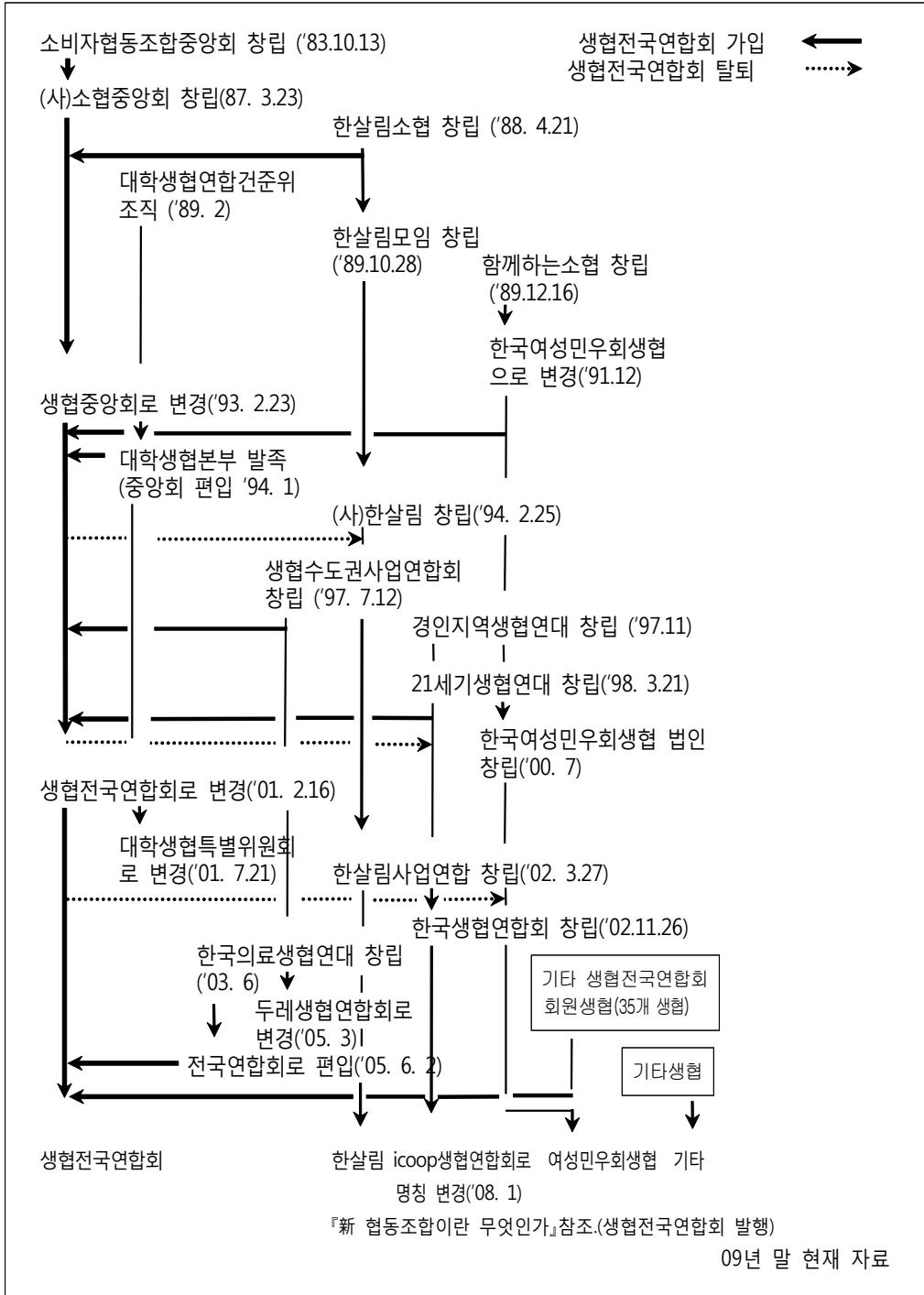
④ 아이쿱생협연합회

경인 지역의 9개 생협들이 수도권사업연합회와 별도로 사업연합을 결성하였으며 21세기생협연대로 명명하였다. 결과적으로 어느 생협 보다도 단기간 내에 급속한 사업적 성장을 이루었다.

초기부터 물류사업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집중과 조직의 분화라는 방향으로 조직화를 해갔으며, 이러한 정책은 지역의 소규모단체들이 물류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구매대행제도와 같은 강력한 물류기능 집중과 '자연드림'이라는 브랜드 통합을 통하여 생협의 효율적 경영을 가능하게 했으며, 생협단체들 중 짧은 기간내 가장 높은 사업성장을 이루는 연합회가 되었다. 단위생협의 배송, 시스템, 물류, 브랜드, 물품 등 모든 사업영역을 연합회가 집행하는 연합회 중심의 운영체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체성 면에서는 '안전한 먹을거리의 대중적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모아졌으며 유럽 협동조합이 가지는 규모와 대중성에 주목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 물류체계를 정비 확산하고 있다.

< 표 2 >



6. 한국형 생협운동의 특징

(1) 창립기 생협의 내용과 특징

① 직거래

전통적인 소비자협동조합과 비교하여 확연하게 구분되는 지점이다. 농산물을 중심으로 물품취급을 했으며, 현재 가공품과 잡화류 등이 많이 개발, 취급되고 있지만 농산물이 갖는 중요성은 여전하다. 직거래의 원칙인 책임생산, 책임소비를 기본으로 하고, 생산자와의 대면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② 유기농산물

먹을거리 안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느 생협이든 자연스럽게 저농약, 무농약과 같은 친환경 농산물의 취급으로 이어졌다. 유기농산물이 가지는 생명, 생태 존중의 관점 안에 한국형 생협운동의 가치가 잘 드러나 있다. 생협운동이 태동하던 당시에는 유기농산물을 중심으로 농산물을 취급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조합원과 생산자는 거의 맨땅에서 물품을 하나씩 개발하고 안전성을 높여나갔다. 우리밀의 개발과정도 그러했다. 그 결과 유기농산물, 무첨가제 가공품의 공급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③ 안전한 먹을거리

유럽의 발전해온 전통적인 소비자협동조합들은 경제성에 중심가치를 두고 있다. 반면 한국의 생협은 경제성 보다는 안전성, 물품의 환경적 영향 등과 같은 비경제적 가치에 보다 집중해왔다.

④ 농업

한국형 생협운동은 식량자급이나 농업의 산업적 가치와 더불어, 농업이 가지고 있는 생태, 문화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농업이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명운동과 연관해 본다면, 농적(農的) 가치와 대안문명의 가능성을 탐색해왔다. 기후변화시대의 식량문제, 산업문명, 도시문명의 생활양식에서 농적 생활양식으로 전환은 현실적 의제가 되었다.

⑤ 참여와 대중성

생협이 시민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작은 실천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선각적 실천가들이 높은 목표를 실천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대중의 구매행위를 바꾸는 것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방식에 눈 뜨게 한 것이 생협이라 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리해서 소수만을 위한 물품을 개발하기 보다는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개발 취급하고 끊임없이 개선해가는 것이 생협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적 운동의 방향으로서 특징

생협운동이 분화되면서 일부 생협운동 진영에서 문명전환, 생활경제운동, 생활공동체운동을 천명한 생명운동 관점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첫째 생협 역시 시장경제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며, 동시에 국가권력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그것이다. 둘째는 한살림과 같은 생협운동은 노동운동과 무관한 계급성에 기초하지 않는 중산층운동이라는 비판을 가했다.

생협은 주류사회든, 주류사회에 비판적인 사회운동세력이든 경제성장에 기반을 둔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를 지향한다고 보았다. 생협이 실천적 대안으로 제시한 대안은 협동과 협의에 의한 경제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사회의 기본 방향에 대한 반성 없이는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표 3>

	주류사회의 방향	생협운동이 사회에 제안한 대안
경제적 목표	성장, 시장	협동과 협의의 경제
사회적 목표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	생산·소비·유통·재생산을 잇는 순환시스템
운동의 목표	권력과 부의 분배, 평등	협동과 협의의 경제체제 형성
사회, 경제 운동	노동운동	대안운동, 협동운동 생태운동, 유기농업운동

7. '생명운동 관점의 생활협동운동'에 대한 평가와 과제

① 도농 직거래의 변화와 과제

생활협동운동이 '농업'을 운동의 중요한 테마로 생각하고 직거래를 수급의 기본 원리로 한다는 점에서는 창립기의 생협과 지금의 생협이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건강한 먹을거리 공급시스템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와 식량위기의 시대에 농업과 식량문제는 조합원과 함께 운동해야할 의제임이 분명하다. 다만 참여하는 생산자, 조합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창립기부터 가지고 왔던 대면 관계 중심의 직거래 활동을 생산자와 조합원의 구성 변화에 맞춰 어떻게 창조적으로 적용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꾸러미 등 CSA형 직거래시스템이다. 생협은 관계 중심으로 도, 농 직거래가 만들어져 왔다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는 그 결과로써 안전한 먹을거리 구매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한 면에서 CSA형 농업은 생협형 직거래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농산물 중심의 지역거래의 활성화 및 기존 물류에 대한 보완 역시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② 공급방식의 변화: 공동체공급에서 개별공급, 매장공급으로 이동

공동체 공급은 소규모 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주었으며, 조합원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 생협운동이 출발하여 25년 이상이 흐른 지금의 상황은 매장공급과 개별공급으로 이동하였다. 전업 주부가 참여하여 물품나눔, 주문접수, 정보나눔의 역할로부터 생협운동에 참여하였던 시기가 지나고 매장과 개별공급을 통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개별공급, 공동체공급의 전제는 지역 공동체성 확보라는 것이다. 기초조직 활동(마을, 햇살 모임, 소모임, 매장모임 등)과 지역조직 (지부, 지구)의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생협의 규모가 커지고 많은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적 운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도 절박한 과제라 할 수 있다.

③ 생협의제의 사회화

농업, 식량자급 등은 생협이 창립기에서부터 가져온 의제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밀 살리기'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현재와 같이 기후변화, 식량위기가 상존하는 시기는 농업이나 식량자급에 대해 영향력 있는 단체로 변한 생협이 자신의 의제를 정책화 하고 사회적 발언이 필요한 때다.

또한, 전통적인 의제 외에도 핵문제와 에너지 문제와 같은 분야에서도 정책적 활동과 대안을 스스로 생산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④ 생명가치, 협동가치 등 이념의 약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생협의 대중화는 생협의 가치를 시민사회가 받아들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생협운동이 이제 과거와 같은 소수의 고립적인 운동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유의미

한 규모로 성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으로부터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중적 참여는 다른 한편으로 이념의 약화를 가져왔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단체일 뿐, 공동구입 과정을 실감할 수도 없고 운동의 이념을 동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과정도 매우 약화됐다. 생협의 역량을 물품사업에만 집중시키는 경영주의적 편향도 가속화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생협의 일상활동인 물품사업을 운동성과 분리시켜 사고하는 경향성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 생협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운동의 성과에 기초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운동의 방향성을 논의할 때가 된 듯하다. 가령 두레생협연합회에서 정체성 논의 과정에서 나온 '지역생명운동'에 대한 논의나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과 같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동체성을 구성하려는 시도를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다. 성미산과 같은 도시형 공동체 운동의 등장은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일본 생협들이 '먹을거리 전문 생협'에서 '워커즈 컬렉티브'나 '지역사회 복지' 등의 테마를 통하여 운동 의제를 넓혀가는 과정이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1990년대 이후 생명운동의 확산

이소영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1. 문제 제기: 90년 이후 생명운동은 무엇인가

1990년 개최된 한살림좌담회에서 “녹색이 생명운동의 서구적 표현이라면, 한살림은 생명운동의 한국적 개념”이라고 정의한다. 탈근대와 탈산업 문명의 새로운 가치관 형성을 목표로 진행되어온 서구의 녹색운동이라는 일종의 문화변혁운동이 한국에서는 생명운동의 이름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한살림운동이 이러한 생명운동의 주축이라는 뜻이겠다.

기존의 투쟁과 쟁취의 사회운동방식과 차별화된 협동과 공동체성 회복을 강조한 생협운동은 당시로서 매우 진보적인 대안운동이었으며 서구 녹색운동에 부응하는 한국식 생명운동을 펼치고자했던 한살림운동의 주요 운동도구로써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유기농 직거래를 통한 ‘밥상 살리기 운동’에 기반 했던 생협운동은 한살림뿐만 아니라 이후 마포두레생협, 광명YMCA생협, 원주협동조합 지역사회, 흥성풀무 생협, 팔당생명살림, 여성민우회 생협, 정농생협 등 다양한 방식의 생협활동으로 확산 되어갔다. 그러나 이때의 다양한 생협운동이 모두 한살림에서 바라본 생명운동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생협운동에 대한 분석은 김재겸의 글에서 다루어진 부분이며 본 글에서는 생협운동을 제외한 90년대 생명운동, 즉 생협운동을 제외한 생명운동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리해야한다.

90년대 이후 생명운동을 정의하기 위해 몇 가지 정리되지 않는 질문을 던져보자. 환경운동연합의 ‘환경이 생명이다’, 혹은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녹색연합의 생태마을만들기 등 기존 환경운동단체에서 표방하는 ‘생명’은 다른 형태, 즉 한살림이 추구하는 생명운동인가 아니면 기존 환경운동의 연장선인가? 같은 맥락에서 생태산촌만들기, 생태건축아카데미 등 ‘생태’를 표방한 운동은 생명운동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귀농운동, 이장 등 농촌관련 운동은 모두 생명운동의 범주에 있는가? 그렇다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을복원운동(예: 담장허물기 운동)이나 지역화폐운동 등은 생명운동이 아닌가?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는 교육이

바로서야 하기에 생명과 생태를 비롯한 진정한 사회 가치를 제대로 계승하는 교육 추구를 목표로하는 대안교육운동은 생명운동인가? 공동육아운동에서 시작된 성미산 마을은 대안교육, 생협활동, 마을만들기라는 생활실천운동이기에 진정으로 포괄적이며 확장된 총체적 생명운동의 실체가 아닐까? 간디농장에서 시작한 산청 간디학교와 귀농학교, 작은학교에서 출발하여 생명평화결사로 확장된 인드라망생명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협이 교육운동으로, 혹은 교육운동이 생협을 꾸리고 지역살리기로 확산되는 비전략적 전략을 추구하여 생활세계 그물망을 짜나가는 이 운동이 생명운동이 아닌가?

다시 1990년 한살림좌담회로 돌아가면 “한살림운동은 중국적으로 단순한 먹을거리 운동에 머물지 않고, 세계관, 생활양식, 사회를 비롯한 산업문명의 전환을 꾀하는 총체적 생명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위 문장에서 주어를 앞서 살펴본 90년대 이후 발생한 다양한 모습의 운동들로 바꾸면 그 진행양상과 확장성에서 좌담회에서 요구하는 성공한 생명운동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그 내용 면면이 좌담회에서 언급된 단순한 먹거리 거래에서 문명전환을 향한 문화운동의 일환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본래 주어로 돌아와 총체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한살림운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검증할 수도 없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김지하의 메타메시지로서의 생명을 여전히 안고 있는가? 대중의 이해와 대중의 연대가 요구되는 생활운동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알 것 같지만 알 수 없는 생명운동을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중국적으로 단순한 먹을거리 운동에 머물”고 있는 한살림운동은 생명운동인가?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생명운동과 한살림의 생명운동, 그리고 김지하의 생명운동은 다르지 않은가?

이에 대한 고민은 한살림운동을 펼쳐가는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풀어갈 숙제이다. 여기에서는 90년대 이후 확산되고 있는 생명운동의 흐름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이는 생명운동 혹은 생태운동, 생활운동 등의 정의 및 각 운동영역을 분류하는 작업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의의가 있다고 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의와 영역별 분류도 중요하겠으나 이 시점에서는 생명운동에 대한, 생명운동의 모호함이, 한살림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잉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단 생명운동의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2. 90년대 종교중심의 생명운동

1993년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우루과이 라운드, 1996년 OECD 가입, 1997년

IMF 구제금융 등 서구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미 90년대 초부터 우리에게 매우 빠른 속도로 접근했다. 국가와 시장자본이 지역과 생활세계에 직접 침투하는 경험을 통해 생활세계의 위험에 대해 재인식한 시민운동 영역은 환경운동, 생활문화운동, 지역운동, 대안교육운동 등으로 숨구멍을 열어 갔고 농촌과 농업 해체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유기농, 귀농, 생협 등 농업과 연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동시에 국가는 새만금간척, 고속철건설, 4대강사업 등 여전히 (신)개발주의적 대형국책사업을 대중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왔다. 이는 서구의 경우 (합리화된) 체계와 생활세계 분화 이후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대응한 생활세계 재구축 운동이 가능했으나 한국의 경우 국가 체계의 합리화에 대한 대응과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대한 대응이 함께 가야하는 열악한 상황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전략적 전략을 추구하여 생활세계 그물망을 짜나가는 운동 방식에서는 담론의 확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녹색평론'이 담론확산의 중심역할을 했다는 것은 지론이다. 문명의 전환기에 있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근본생태론자들의 논의 또한 녹색평론을 통해 다양하게 소개되었다. 서구의 근본생태론자들은 자연과 인간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근거로 현대물리학과 생태학을 취했다. 물론 근본생태론이 동양의 여러 철학과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서구 대중에게 색다른 무엇으로 비춰진 면도 부인할 수 없다. 이들 근본생태론이 서구에서 유효한 가치를 갖는 것과 그 확산에 힘입어 실은 우리가 원조라며 포장을 달리한 뒤 한국에 유포해온 학문잡상인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을 빌어 논의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현대물리학과 생태학을 근거로 형성된 서구의 근본생태론에 비해 한국의 생명사상은 종교철학을 근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실참여의 방식에서도 종교를 매개로 하고 있는 특이성을 가지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90년대 한국의 다양한 종교에서 주창한 의식전환운동 즉, 물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현인류의 위기를 영성과 종교를 토대로 한 탈물질적 삶의 양식으로 전환하고자 한 종교적 차원에서의 생명운동과 앞서 언급한 다양한 방식의 생태, 생명운동, 생협운동, 한살림운동과 상당부분 유사한 맥락을 지닌다. 심지어 종교 차원에서 진행되는 생명운동의 일환으로 생협활동 혹은 포괄적 생협운동인 도농교류, 농촌살리기운동 등이 펼쳐진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90년대 생명운동을 각 종교에 따라 아래에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천주교

천주교는 이미 80년대 중반 원주 교구에서 한살림 유기 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후원했다. 한살림운동의 생명철학은 동학을 근거로 삼고 천주교인들의 지원을 받아 시작되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90년대에 이르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담화문 발표 이후 환경보호운동이 교인들의 실천과제로 인식되었으며 서울 대교구의 이재돈 신부를 중심으로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형성하여 '하늘.땅.물.벗'모임을 통해 생활실천운동을 펼친다. 이후 전형적인 환경운동으로 인천 교구 영흥도 화력발전소 및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반대운동, 원주 교구 동강 영월댐건설반대운동 및 미군부대 환경오염문제 대응, 광주 교구의 영광반핵운동 등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실천되었다. 동시에 안동 교구 농민운동을 배경으로 시작된 '생명의 공동체'와 대구 교구의 '푸른평화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생협활동과 교육운동이 펼쳐졌다. 또한 농촌살리기에 주축이었던 가톨릭농민회는 생명운동으로 노선을 정립하고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펼친다. 1990년 20차 가톨릭농민회 대의원 대회 선언문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을 억압, 소외, 왜곡하는 구조의 모순, 제도의 강제를 바로잡기 위한 싸움에 이 땅의 농민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더 나아가 모든 구조의 모순을 지탱하고 심화시키는 토대인 반생명, 반공동체적 문명양식을 바로잡는데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첫째, 우리는 우주 생명의 하나이자 전체인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며 생명의 가치관, 세계관으로 중심을 단단히 세우고 일체의 반생명질서, 공해추방에 앞장서며 남을 살리고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농업에 충실할 것을 선언한다. 둘째, 개인, 거래, 인류 그리고 모든 생명은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임을 자각하고 이웃과 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는 현장생활공동체를 건설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실현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셋째, 우리 사회 구성원과 우리 거래 모두를 갈라놓고 생명을 위협하는 남북분단과 핵무기의 쇄사슬을 끊어버리고, 민족공동체가 하나로 열싸안고 인류평화를 더욱 확실히 뿌리내리기 위해 반핵, 반전, 평화운동과 민족통일운동에 매진한다."

가톨릭농민회는 천주교의 관심사인 낙태 등의 인공피임문제와 관련된 생명담론과는 다른 방식, 즉 유기체 전체의 생명을 문제로 삼는 새로운 생명담론을 유포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참고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의 [경향잡지]를 살펴보면 그 내용 중 <생명운동, 구원을 향하여>가 언급하는 주제들이 1990년 '이제 도시 사람들이 농촌을 살려야 한다', '생명의 길인 유기농법'과 91년 '밀만 살릴 수 있

다면, '파괴되는 자연 앞에 종파 떠나 힘 모으자', 92년 '생명운동과 교회의 역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0년대에 와서는 교구별 연대 환경사목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문규현 신부가 새만금 사업 반대운동 등에 타 종교와 연대하여 공동 대처하게 된다. 이후 천주교의 생명운동 영역은 평화운동으로 확대되어 아프카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반대, 한국군 국외파병반대, 미군기지 이전 및 미군 재배치 반대 등 반전평화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 불교

1988년 법륜스님을 중심으로 서울 홍제동 정토포교원이 구성되었다. 이들은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써 사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과 자유가 실현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땅'이라는 가치를 내걸었다. 이들이 생명운동의 일환으로 주목받는 것은 1990년 한국불교환경교육원(현 에코붓다)을 중심으로 인간의 물질 욕망을 강조하는 삶의 방식을 전환시키고자 생명과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면서 생명운동을 화두로 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자연과 조화되는 가치관을,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 대안문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불교를 바탕으로 한 생활세계혁신으로 생명운동의 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생태학교와 생명운동아카데미를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을 상대로 한 빈그릇운동과 지렁이보급운동을 펼쳤다. 공동체의 구체적 실천내용을 보면 생활쓰레기 감소를 위해 엄격한 분리배출을 하고 그 일환으로 비닐포장 반입을 금지하며 캔사용을 반대하고 화장실에서는 휴지사용 대신 뒷물사용을 한다. 공양간에서는 접시하나만 사용하는 공양을 하여 음식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남은 음식물은 지렁이를 이용하여 퇴비화 한다.

이처럼 90년부터 시작된 환경, 생태, 생명의식을 추구하는 법륜의 노선전환은 1992년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의 '청정국토한마당'과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한다는 법정의 가르침을 따르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 등과 함께 환경 의식과 실천을 이행해 왔다. 이는 불교계 스스로의 깨우침도 있었으며 동시에 1994년 이후 지자체 주도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사찰 피해가 증가하면서 공식적인 대응을 시작한 연유도 있다. 또한 '무소유' 등의 불교사상은 이전부터 주장되어 왔으나 90년대에 와서야 대중들에게 새로운 성찰로 인식된 이유도 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불교 내 종권 분쟁을 거치면서 보다 평화롭고 생명을 존중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노선을 정하여 생명살림운동을 본격화 하였다. 이는 귀농운동, 생협활동, 지역공동체살리기, 대안학교, 대안마을 운동 등으로 실천되었다. 그 예로 생태귀농학교를 통해 전문강좌와 현장학습을 추진하고 귀농자 교육 강좌 등을 펼치며 '생태적 가치와 자립적 삶'을 기치로 1996년 결성된 전국귀농운동본부의 실습지로 1999년 실상사 3만평 토지를 제공한 도법스님의 인드라마생명공동체가 있다. 불교의 인드라마 세계관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사부대중공동체이다. 이는 불가철학을 바탕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사부대중공동체를 지향하지만 특정 종교인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귀농자들과 지역민이 함께 지역의 공동체성을 살리는 운동이다. 따라서 인드라마귀농학교, 대안중등학교인 작은학교, 산내들어린이집을 통한 생명교육실천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한생명이 주축이 되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에 뿌리내리는 역할을 위해 복지, 문화, 건강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마을을 중심으로한 총체적 생명운동은 먹거리 생산과 생태건축, 생태적 분노처리 및 태양열집열기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발전까지 확장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과 생명을 파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추진한다. 2001년 불교환경연대가 출범했으며 인드라마생명공동체를 중심으로 지리산 댐건설 반대를 위한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에 이어 백두대간 지키기의 '국토청정 기원 100일 대장정'은 '생명운동의 새로운 기원으로 동서간 갈등과 종교간 갈등을 상생의 차원으로 승화하고 통일운동으로까지 발전'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진다. 또한 새만금사업반대를 위한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의 삼보일배 및 천성산 살리기 운동을 위한 지울스님의 단식은 환경문제를 생명과 평화의 문제로 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이후 확장된 생명평화운동은 도법스님을 중심으로 '생명평화탁발순례'를 시작한다.

3) 기독교

기독교에서는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크리스찬아카데미와 YMCA가 주축이 된 생활운동을 1970년대부터 펼쳐왔다. 이후 1981년 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가 선교방향을 '생명운동'으로 정했고 이에 따라 자가용 사지 않기, 유행 안 따르기, 집 평수 적절하게 가지기, 농토보존하기, 전인교육, 기득권 포기운동, 핵반대운동 등 환경운동과 관련한 기장여신도회전국연합회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는 무공해 농산물 직거래 운동으로 나아갔다. 당시 생명운동을 위한

여신도들의 교재로 쓰인 [새하늘 새땅]을 살펴보면 '죽어가는 농촌, 이윤 추구에 집착한 기업, 개인주의 경쟁구조에서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문화에 대응하여 살리는 문화...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자연대로 사는 길, 자원을 이기고 공해를 추방하여 온 지구촌 사람들이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생명의 길이 바로 기독교 여성들이 가야 할 길이니 깨닫고 실천하자'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생명문화 창조운동과 관련한 의식교육과 홍보활동에 매진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운동과 농촌총각 결혼대책 프로그램 등을 통한 농촌살리기와 정신대문제해결, '민가협'과 연대운동 등 통일운동으로 확산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각 지역에서 기독교환경단체가 조직되었고 기독교환경운동연대를 중심으로 환경교육과 '생명길 좁은문 운동'이라는 실천 운동에 참여하며 환경주일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1998년 김영락 목사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녹색교회21'을 제정한 후 지역을 순회하며 '생태적 삶'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후 한국교회환경연구소가 '생태적 삶'을 주제로 창조의 영성회복을 목표로 한 교육활동을 펼친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생명을 살리는 문화운동으로서의 예수운동을 추구하고 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생명관이란 "모든 살아 있는 생명은 관계를 떠나서는 생성, 유지, 성장이 불가능한 상호공생의 길을 추구해야함을 의미하며 생명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와 과학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명신학과 기독교 문화]에 표현되어 있다. 즉, 살아 있는 생명들의 고통과 파괴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창조한 하나님과는 반대로 반생명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자신만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다는 잘못된 약속을 함으로 신앙마저도 위기에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이기상은 생명문화 형성을 위해 생명철학은 발상의 전환, 즉 인간의 인식론적 사유의 틀이 '존재(있음)'에서 '생명(살아있음)'으로 '이성'에서 '감성'으로 전환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기독교를 바탕으로 생명운동 혹은 생명철학을 실천해온 생활운동의 사례로는 부천YMCA 등대운동과 YMCA 민들레 홀씨 생명사랑공동체운동을 꼽을 수 있다. 지역자치활동을 이루는 소공동체 운동으로써 1989년에 시작된 부천YMCA 등대운동은 촛불이라고 불리는 주부들이 중심이 된다. 1주일에 한번 꼴로 등대모임을 갖는데 이때 마음나눔, 활동나눔, 생활재나눔, 공동체식사 등의 활동을 펼친다. 기독교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를 살리고자 생협과 지역사회활동을 펼치는 등대운동은 풀씨유아학교(전 아기사포츠단)로도 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초등대안교육기관인 법씨학교로 확장되었다. 아이들과 함께 부모가 성장한다고 선언한

법씨학교는 생협활동을 하는 조합원이나 지역주민들의 자녀만 입학이 가능하며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YWCA 민들레 홀씨 생명사랑공동체운동은 위에서 언급된 촛불이 홀씨역할을 하고 풀씨유아학교 자모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펼치는 '생명사랑공동체이루기'는 생(명을 귀하게 감사하게!) 명(령보다 대화로!) 사(려깊은 이웃 섬김) 랑(비 아닌 절약-아나바다) 공(동생활-예절과 양보!) 동(참하기, 자원봉사) 체(힘하기, 생명살림) 이(용하기, 대중교통) 루(구나 언제나 친환경 먹거리) 기(땀으로 퍼져가는 생명의 홀씨되기)를 뜻한다.

4) 원불교

1980년대 후반 원불교대학생연합회를 중심으로한 영광 핵발전소 반대운동이 원불교의 환경운동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이후 1992년 환경연구회가 창립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전개되었다. 주부 환경학교, 살림답사기행, 환경법회, 녹색장터 및 생협운동(한울안생협 원기 77년) 등 다양한 실천활동이 펼쳐졌으며 환경과 생명, 은혜를 살리는 원불교인들의 결의문이 채택되기에 이른다. 특히 원불교 청년회는 정신개혁과 생명의 마음공부에 관심을 두고 '개벽·통일·환경'을 구호로 한 생명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후 통일운동에 집중한다. 2000년대에 이르러 원불교 환경운동 교단 조직인 원불교 천지보은회가 창립되어 지역별, 단체별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4. 종교간 연대

90년대 이후 종교를 중심으로 한 생명운동 중 주목할 부분은 종교간 연대활동의 시작이다. 1993년에는 종교간 연대 환경활동기구를 창설하였고 종교인 환경선언을 발표하였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2000년에 GMO반대 생명운동연대를 발족하고 감리교농도생협,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녹색평론사, 방주공동체, 예장생협,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21세기영농조합법인,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농회, 주민생협,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 흙살림 등이 참여했다. 2001년 새만금 반대 이후에는 종교환경회의를 창설하여 종교적 영성에 기반 한 환경운동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이는 환경문제를 생명과 평화의 내용으로 승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동참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종교인 생명평화 100일 도보순례 등 생명평화회의가 좋은 사례이다.

환경운동의 측면에서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더불어 2010년에 7개 종단이 환경정책실천협의회 '풍성한 생명, 지금 여기: 환경, 더불어살기'를 구성했다. 천주교는 생명을 살리는 운동, 생활공동체운동, 공동육아, 친환경교육, 대안학교, 방중 생명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교에서는 즐거운 불편, 도농교류, 물품나눔, 생태건축, 녹지공간조성, 음식물쓰레기퇴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천도교의 경우 생명운동시작이 바로 해월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며 인내천 생명환경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회본부의 '한울타리'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불교는 환경·생명·생태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유·무념 마음공부를 실천하고 있다.

5. 다시 문제제기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적 차원의 생명운동에서조차 생협운동을 제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물질만능이 능사가 아니라 영적 성숙을 요구하는 종교적 생명운동이 그 추진방향 혹은 수단으로 생협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생협이나 한살림운동에서의 생명운동과 궤는 같이나 근본적인 의미는 종교적 목적에 부합할 것이다. 하지만 특정집단의 운동이 아니라 일상적 삶의 자세로서의 생명활동을 주장하는 바는 다시 생협이나 한살림운동과 닮아있다.

다시 문제제기를 해보자. 2011년의 한살림은 분명 생협운동이다. 한국의 생명사상과 그에 따른 생명운동이 상당부분 종교를 근간으로 했고 현재 종교활동 부문에서 더욱 활발히 실천되고 있다. 따라서 한살림운동이 생명운동의 일환이 될 수는 있으나 생명운동과 동일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먹거리를 매개로 한 생명운동으로써의 한살림운동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운동인가? 한살림운동은 '탈근대.탈산업문명의 새로운 가치관 형성을 위한 문화운동'이며 '단순한 먹을거리 운동에 머물지 않고, 세계관, 생활양식, 사회를 비롯한 산업문명의 전환을 꾀하는 총체적 생명운동'이었으나 시급한 인간 소외의 자본주의적 시장원리 극복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시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 먹거리를 매개로한 생명운동인 한살림운동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운동인가?

한살림뿐만 아니라 종교적 생명운동 전반에 걸쳐 질문해 보자. 종교에서의 환경운동이 기존의 환경운동과 차별화를 위해 '생태'나 '생명'이라는 개념을 차용한 것은 아닐까? 한살림도 마찬가지 아닐까? 기존의 환경운동이 대형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수준이었고 이를 넘어서 일상적 삶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생명평화실천을 위한 국민의식 향상을 독려하는 종교단체 혹은 한살림의 생명운동이, 생명운동과

개혁의 중요성이 극대화된 이 급박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자들, 배고픈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체계와 생활세계의 분화를 겪고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대응하는 운동을 펼치는 서구와 달리 우리는 체계의 합리화와 동시에 생활세계의 식민화 대응을 함께 펼쳐야하는 상황임을 언급했다. 달리 말하자면 서구의 인권, 여성, 평화, 환경 등의 신사회운동이 한국에서는 민중, 노동운동 등의 구사회운동과 분별이 힘든 이유이며 그래서 더욱 연대를 강조해야하는 이유라고 본다. 생명운동이 기존 투쟁방식의 환경운동을 넘어섰고 일상생활의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방식으로 한 단계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영역확장 혹은 일반화에 한계를 보이는 것은 민중, 노동운동, 기존의 환경운동 등과 연대의 모색은 내려놓은 반면 중산층 이데올로기에 스스로를 가둬두었기 때문은 아닐까? 다시 질문한다. 초기 품었던 생명운동의 대의보다 '먹거리를 매개'로 한 생명운동으로써의 한살림운동으로 범위를 축소했다면, 그렇다면 먹거리를 매개로한, 그 한살림운동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운동인가?

지식정보화 시대와 한살림

백승권 (조계종 화쟁위원회 사무국장 / 전 솔외공동체 총무)

1. 마중물

요즘 내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테드 컨퍼런스(ted.com)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지식을 접하는 것이다. 대형사건을 다룬 뉴스를 보고도 좀처럼 반응할 줄 모르는 내 덩덤함도 테드를 만나선 움찔움찔한다. '아, 세상에 저런 것이 있었구나, 저걸 저렇게 볼 수도 있네, 참 발랄 발칙한 상상이구만.' 등등.

테드는 책처럼 시간과 장소에 거의 구애받지 않는다. 사무실이나 집에선 노트북을 통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일 때엔 스마트폰을 통해 나는 이 지식의 성찬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있다. 나를 더 기쁘게 만드는 것은 이 성찬이 공짜라는 것이다. 공짜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나 광고배너 클릭 따위를 요구하지도 않고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따위도 필요 없다. 그야말로 무조건 퍼주는 것이다. <금강경>에 나오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에 비유하면 너무 지나친 비약일까? 아무튼 그런 표현이 떠오를 만큼 좋은 건 사실이다.

여기서 본 콘텐츠 가운데 인상 깊은 꼭지가 하나 있어, '지식정보화 시대와 한살림'이란 거창한 타이틀을 달았으나 소품에 불과할 것이 자명한 이 글을 시작하는 빌미로 삼고자 한다.

생물학자 마크 페겔(Mark Pagel)은 언어가 인류를 어떻게 발전시켰는가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들어가며 독특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우리는 언어가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도구이며 오직 그런 방향으로 언어가 발전해 왔을 것으로 철썩 같이 믿고 있다. 그러나 페겔은 이 당연한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물증을 들이대며 우리의 통념을 깨고 있다. 페겔이 주장하는 충격적인 사실은 지구촌 어느 지역에서 언어는 의사소통을 단절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기능하고 발전했다는 것이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파푸아뉴기니가 페겔이 제시하는 물증이 존재하는 무대다. 놀랍게도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은 1,000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고 한다. 학창시절 벨기에나 스위스에서 3개 국어를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는 ‘야, 저 나라 애들은 언제 다 저 말을 배운다냐?’ 현기증 비슷한 것을 느낀 기억이 있는데, 파푸아뉴기니는 아예 줄도를 해야 마땅한 지경이 아닌가.

파푸아뉴기니는 1.6Km 간격으로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부족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종로구 안에서도 동별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셈이 된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폐결은 파푸아뉴기니의 이기이한 현상을 이렇게 분석한다.

공통의 언어로 묶여진 공동체 대부분은 다른 공동체의 새로운 기술과 발견을 적극적으로 주고받는다. 나의 새로운 기술과 발견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지만 상대방의 것을 알아야겠으니 주고받는 교환을 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교환을 통해 상대방의 정신적, 물질적 진보와 성과를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교환의 주요한 수단이 되는 언어는 점점 닳아가고 마침내 같은 언어를 쓰는 공동체로까지 발전한다. 이런 역사의 순방향은 오늘날 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등 수 억 명 혹은 수 천만 명이 같은 언어를 쓰는 언어 공동체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파푸아뉴기니는 그 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즉 내 공동체(우리)와 다른 공동체(그들)를 확연하게 구분 짓고, 우리의 새로운 기술과 발견을 그들이 결코 베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각자의 언어를 집요하게 고립시켰다. 그 결과 이들은 불과 10리 안 다른 부족의 언어조차도 이해하기 힘들게 됐다. 그야말로 파푸아뉴기니 섬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공간에 함께 있지만 언어의 측면으로 보면 아주 작은 섬처럼 잘게 나뉘져 고립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부족이든 나라든 조직이든 길은 대략 두 갈래다. 하나는 이질적인 상대방과 교환 혹은 통섭을 통해 우리를 넓히고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켜내기 위해 가급적 이질적인 것들이 뒤섞이지 않도록 내부적 동질성에만 호소하는 것이다.

한살림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혹시 남태평양의 외로운 섬나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문명사적 전환이라 일컬어지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한살림이 자신의 선 자리와 갈 길을 모색하는 근본적 물음이 될 것이다.

2. 한살림과 생명운동

지식정보화시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한살림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한살림과 생명운동의 관계에 대해 먼저 짚어보도록 하자. 2차례의 생명운동 워크숍을 통해 일반적인 생명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속에서 한살림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고찰한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엔 한살림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생명운동이라는 레일 속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생명운동의 담론과 실천운동이 어떻게 확산되고 발전했는가를 한살림의 설립과 발전의 과정으로 수렴하는 데엔 한계가 있고, 그 반대로 한살림의 역사를 생명운동의 발전과정으로 온전히 대입시키는 데엔 무리가 따른다는 사실이다.

한살림이 생명운동적 차원의 문제의식과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한 것은 맞다. 그러나 생명운동은 한살림 이전에도, 어떻게 보면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속됐던 흐름이다.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에서부터 고대 중국의 제자백가, 고대 그리스 아고라의 철학자들, 자연과학자, 사회학자, 예술가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문제가 바로 생명 아니었던가.

이 거대한 흐름, 어찌 보면 인류 정신사의 가장 큰 물줄기라고도 할 수 있는, 너무나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살림의 설립과 발전과정으로 생명운동의 주요한 흐름을 설명하는 것은 왠지 버거워 보인다.

그 반대로 생명운동이라는 한 가지 레일로 한살림의 발전 과정 전체를 다 해석할 수도 없다고 본다. 한살림은 25년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생명운동이라는 한 두름으로 꿰 수 없는 다면적 정체성을 갖게 됐다. 그런 점에서 이 워크숍이 실제적 논의로 발전하기 위해선 주요한 고찰 대상이 생명운동이 아니라 한살림 자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한살림의 정체성 : 직거래, 생협, 안전한 먹을거리

한살림의 다면적 정체성을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이렇다. 직거래, 생협, 안전한 먹을거리. 그밖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도농간의 농산물 직거래를 넘어 여러 형태의 문화적 교류와 소통까지 포함될 텐데, 대략 3가지로 국한시켜 보자.

이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고 한살림 농산을 시작하면서 제기됐던 선언 속에서 주장했던 지향은 어떤 것이었고 그것이 25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거나 변화, 발전해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살림 내부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분석을 하거나 성찰을

한 자료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어떤 조직이든 탄광의 카나리아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끝없이 미래를 탐색하고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조직은 변화를 예민하게 읽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끝없이 고민하는 탄광의 카나리아가 필요하다. 이런 감각기관이 살아 있을 때 문제제기, 진단, 전망도 유효할 것이다.)

첫 번째 직거래에 대한 이야기다. '한살림을 시작하면서'라는 글에 직거래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한 대목이 나온다.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줄여서 과도한 유통마진을 줄이는 직거래 활동을 펼쳐서 농산물의 품질이나 수량을 믿을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만나게 하고 친한 사이가 되도록 하여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이가 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 한살림을 시작하면서

한살림은 여기서 출발했지만 현재 도달한 지점은 대량공급체계다. 이제 직거래라고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어색한 부분이 많다. 일반 유통단계와 한살림의 유통단계가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라고 반문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얼마 전 발생한 뒤통스 문제 역시 이런 구조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밖에 없다. 대량생산, 대량공급 체계에선 이런 리스크를 상수로 두고 대비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생협에 대한 이야기다. 생협은 이윤추구라는 한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자본주의, 경쟁적 시장 경제를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출발했다. 생산, 소비, 유통, 그리고 재생산 과정이 리사이클링 하는 순환시스템으로 고안됐지만, 지금은 마켓의 의미만이 크게 보인다.

“초기엔 소협 중앙회가 중심성 역할을 했으나 한살림이 92~3년에 전국의 규모를 넘어서게 된다. 그러면서 잘못된 구조라 해서 세무당국에서 벌금 맞게 된다. 그걸 계기로 사단법인을 별도로 구성하고, 생협 중앙회와 분리가 되어서 나온다. 소협 중앙회는 88년부터 96년까지 물류 사업을 시행하다가 실패를 겪는다. 방향성 맞는 생협끼리 한살림,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 세 가지 축으로 분화되었다. 98년에 소비자 생협법이 제정이 되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 한살림, 두레, 민우회, 아이쿱 합계를 보면 5천억원의 공급, 조합원 48만세대에 달한다. 4인 가족 계산할 때 200만 세대 가까이 생협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전체 인구의 4% 가까이 된다.” - 김재겸 발표문 인용

지금 한살림이나 아이쿱 등의 운영을 보면 생협으로서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상당히 애매모호해진다. 매출액이 거의 5천억원에 다다르고 조합원이 50만에 육박하는 규모의 생협이 일반 기업과 과연 어떤 차별성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다.

“땅도 살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서로가 믿고 돕는 관계가 되고 모두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 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 **한살림을 시작하면서**

‘안전한 먹을거리’라는 가치는 연이어 터지는 환경문제, 식품사고로 인해 한살림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잔류농약문제, 다이옥신, 환경호르몬, 유전자조작식품, 광우병, 멜라민 파동 등 세계 식품 분업체계에 의한 식품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시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져 생협 조합원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2000년대엔 웰빙붐이 일어나게 된다. 한편 생협 전체의 주제가 유기농업,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게 되었고, 사업적 성장과 안정의 계기를 주기도 하였다. 2002년 이후에 생협은 전년대비 30~40%의 고성장기에 들어 섰으며, 2008년에는 광우병 문제와 멜라민 파동 2010년에는 배추값 파동을 겪으면서 ‘먹을거리 공급체계’로서 인식을 확보되는 계기가 된다...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웰빙붐)은 한편으로는 식품, 유통자본이 유기농산물을 취급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유기농시장이 시장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이며 수입유기농산, 가공품의 급증과 맞물려서 유기농산물이 상품화 되게 된다.” - **김재겸 발표문 인용**

한살림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매개로 하는 가치의 교환, 가치의 공동체를 지향했다. 그러나 한살림의 비약적 성장의 과정은 그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가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4. 변화의 지점에서 갖게 되는 물음들

한살림의 출발지점에서부터 시작해 현재 서 있는 좌표를 그려보면 몇 가지 물음들이 생긴다. 이 물음들은 정연한 분석과 섬세한 고려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의 근저에 있는 생각까지 한번 끌어올려서 회오리를 한바탕 쳐보아야 그 다음에 정돈된 논의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직거래 방식은 여전히 유효한 가치인가 하는 점이다.

- ① 책임생산, 책임소비는 여전히 가능한 미덕인가?
- ② 소비자와 생산자의 익명성은 감당할만한 수준인가?
- ③ 생산자와 소비자 간 가치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라고 말할 수 있는가
- ④ 대량공급체계가 후퇴할 수는 없을텐데, 이 속에서 공동체 공급이 추구했던 정신을 구현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두 번째, 한살림은 생협의 정체성을 지속할 수 있는가, 반드시 지속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 ① 생명운동, 생협과 기업적 가치는 서로 배척되어야만 하는가? 생명운동적, 생협적 가치를 구현하는 기업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가? 경영에서의 영성적 가치의 도입, 영리 추구하고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기업모델의 등장 등 세계적 변화의 징후 속에서 한살림은 새로운 기업모델을 만들 수 없는가?
- ② 기업적 가치의 배제가 정체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가? 혹시 관료주의, 비효율, 변화에 대한 거부라는 내부의 적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 ③ 한살림의 급성장 원인을 주관적, 객관적 두 측면으로 냉정하게 분석해보았는가? 한살림이 비약적 성장을 해왔는데 과연 성장의 원인이 내부 역량이 잘 되어서인지, 시절을 잘 만나서인지도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 ④ 아이쿱 생협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세 번째, 생산자와 소비자, 한살림 실무조직 간 관계와 역할 정립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 ① 소비자 주권의 신장이 생협운동의 폭발적 성장을 갖고 왔는데 직거래, 생협운동의 가치와 소비자 주권, 스마트 컨슈머의 등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② 규모가 커지고 사업적인 체계를 갖추수록 생산자가 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갈수록 생산자 소외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떤 대안이 가능한가?
- ③ 실무조직으로서의 한살림은 조율자, 혹은 코디네이터로서 자기 위상에 대한 자각과 실천이 있는가?

5. 지식정보화 시대 키워드

지금까지 한살림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일궈온 변화의 지점에서 갖게 되는 질문들을 거칠게나마 정리해 봤다. 이제 한살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과 조직들이 당면한 지식정보화 시대란 무엇이고 이것이 변곡점에서 있는 한살림에겐 어떤 의미인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지식정보화시대는 대략 3가지 정도의 큰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관계론적 세계관에 대한 자각과 구현이 현재의 지식정보화 시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다.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의 등장, 글로벌화와 동기화. 어떤 문제도 결국은 전 지구적 문제와 연관되지 않고는 풀어낼 수 없다는 자각들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관계론적 세계관에 대한 자각과 구현은 분과학문, 개별영역 간 거대한 컨버전스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IT, BT, NT, CT, CogT가 융합의 매개체가 되고 있으며 지식, 기술, 문화가 융합하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영역 파괴가 심화되면 자동차 산업을 기계금융제조업으로 볼 것인지, IT산업으로 볼 것인지 카테고리 구분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21세기 메가트렌드는 스마트, 소프트, 세이프라고 본다. 웹 2.0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집단지성의 등장으로 지식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생산과 소비의 분야에서 스마트 컨슈머(Smart Consumer), 프로슈머(Prosumer)를 등장시키고 있다. 유비쿼터스의 일상화, 웹 인프라의 고도화로 모든 서비스는 적시에 이뤄지며(Just-in-time Service) 노동구조는 지식기반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운시프트족(Downshift)의 증가로 문화콘텐츠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며 앞으로 산업 영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미래학자들은 진단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뒤면 직접 생산(제조업이나 농업 등 1차 산업)에 인구의 20% 정도만 종사해도 전 인류의 물질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 안전한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정신적, 물질적 모든 측면에서 웰빙을 추구하는 경향과 문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기업들은 경영에 감성과 영성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영성 경영, 감성 경영이란 말이 일반적 표현이 된 것은 이미 오랜 전 일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본격적으로 이것들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세 번째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총체

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한국 사회로만 국한해서 보면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노동시장의 불안(한편으로는 실업문제, 고용불안이 가속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인구가 부족해지는 모순된 상황) 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는 식량, 에너지, 환경의 위기가 점증하고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은 이런 총체적 위기의 압축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각성된 흐름들이 새로운 사회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살림은 어떻게 조용하거나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런 세상의 변화에 대해 주류적 관점을 갖고 지향해야 할 가치와 현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망을 내놓아야 한다. 이 변화의 징후들과 한살림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괴리됐거나 무관해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풀어내고서야 비로소 큰 그림을 알 수 있는 퍼즐일 것이다.

6. 마무리

이쯤에서 이 원고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두서없이 한살림의 정체성과 현재 변화의 지점에서 갖게 되는 의문들, 한살림을 포함해 우리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징후들에 대해 일별해보았다. 이것들을 정연한 체계 속에 담아내고 상호연관성과 긴밀성, 논리적 정합성에 따라 꿰매고 붙이지는 못했지만 아쉬운 대로 논의의 출발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은 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한 가지 제안으로 마무리를 삼고자 한다.

한살림은 생명운동적 가치,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농적(農的)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출발했다. 그것이 직거래와 생협과 안전한 먹을거리의 가치로 구현됐다. 그러나 현재의 한살림은 생명운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면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차이와 괴리 속에서 정체성도 모호하고 미래의 변화 모색도 쉽지 않을 것이다.

지향하는 가치와 당면한 현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망을 내올 순 없는가? 생명운동과 자본주의 사이, 미래의 메가트렌드들 사이, 공동체성과 효율성 사이, 정체성과 다양성 사이에 말이다. 정체성을 구현하면서 현실과 미래의 변화에도 조용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찾아보자. 지금 하는 것 말고도 농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영역은 많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살림은 플랫폼적인 역할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자동차 산업이라는 플랫폼 속에 IT분야의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결합할

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등 문화콘텐츠 분야까지 레일이 깔린다. 마치 컴퓨터에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깔아놓고 여기에 다양한 프로그램 깔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운동, 농적 가치라는 플랫폼 속에 한살림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직거래, 생협, 안전한 먹을거리만일까 라고 의심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데면 농적 가치를 어떻게 다른 형태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경영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예컨대 페이스북엔 팜빌이라는 농사짓기 게임이 있다. 여기에 수 억 명이 접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 스마트폰에 스머프들이 마을을 만들고 농사를 짓는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되고 있다.

이런 것을 한살림이 하면 안 되는가? 우리가 생명운동적 가치라고 하는 플랫폼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직거래, 생협, 안전한 먹을거리만일까? 이렇게 사고의 전환을 하다보면 한살림이 겪고 있는 현재의 많은 문제, 미래에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도전에 대해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해법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변화를 적극적으로 인식해내고 주류적 관점에서 그 변화를 발전의 기회로 삼을 때만이 한살림은 21세기, 아니 그 먼 미래에까지 세상을 살리는 의미 있는 존재로 역할을 할 것이다.

전환시대 한살림운동의 과제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 소장)

1. 전환시대

한국전쟁 이후 우리 사회는 몇 번의 전환을 경험했다. 1960년의 짧은 '혁명의 시대'를 지나 1961년에 개발독재가 시작되었다. 강고해보이던 개발독재체제도 1987년에는 민중의 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민주화의 흐름이 10여년간 이어졌다. 이러한 민주화의 힘을 바탕으로 1997년 '민주정부'가 탄생했지만, '자연과 사회에 대한 시장의 지배'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민주주의가 시장에 포획된 결과 2008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기구를 사사화(私事化)하면서 자연과 사회를 파괴하고 상품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개발독재, 민주화, 신자유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2011년에는 이러한 흐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전환을 예시(豫示)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 금융위기이다. 하나는 자연재난에 의한 안전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위기라는 점에서 전혀 다른 두 사건이지만 전환의 관점에서 본다면 같은 뿌리에서 파생된 다른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 근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적으로 경제적 혹은 물리적 에너지를 만들고 이를 시스템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trust)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현대인들은 금융자본주의와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은 위험성이 있지만, 자동조절기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고 믿어왔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후진국의 열악한 시스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사람들은 이제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임시방편으로 위험을 관리하며 사회경제적 약자와 약한 생물종 그리고 미래세대로 위험을 전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미국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전이되어 취약한 그리스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금융 시스템이 위기를 시스템 밖으로 외부화하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과 조정 시스템을 통해 원자력과 금융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합리적인 신뢰가 아니라 맹

목적 미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제 사람들은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며 우리는 산업근대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성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011년 이전에는 사람들이 개발, 독재, 민주, 신자유주의와 같은 기호를 둘러싸고 서로 갈등했지만 산업근대의 기반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사람들은 흔들리는 산업근대의 기반 위에서 생명, 생존, 생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성찰적 불신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⁵⁾ 현대성의 주된 특징인 신뢰의 체계가 합리적으로 의심받기 시작했다. 사회적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생태학적 기초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나는 2011년을 새로운 전환의 시작으로 보았지만 사실 전환의 흐름은 196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62년 『침묵의 봄』, 1972년 『성장의 한계』와 같은 저작은 산업근대의 기초를 회의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새로운 전환이 하나의 흐름으로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 가운데에서도 장일순, 김지하, 박재일 등은 시대를 앞서서 통찰력으로 옛 패러다임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한살림 선언'은 전환을 이끄는 열정과 힘으로 가득 차 있다.²⁶⁾

한살림 선언이 발표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위기는 깊어지고 있지만 새로운 전환의 비전, 주체, 힘은 희미하게 보일 뿐이다. 한살림은 30만 조합원이 모인 조직으로 성장했지만 새로운 전환의 꿈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한살림은 지난 세월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이루지 못했나? 이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질문들이다.

2. 한살림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살림은 생협운동, 생명운동의 중심이자 기초이다. '『한살림선언』'으로 대표되는 가치전환운동은 우리 사회에 대안적 생명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한살림 선언이후 우리나라에서 생명가치에 바탕을 둔 운동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계의 생명평화운동이 1990년대말, 2000년대 이후 큰 흐름을 이루었다.²⁷⁾ 『녹색평론』은 생명평화 담론의 공론장으로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바탕에 한살림이 있다.

25) 이제 사람들이 산업 근대의 기초를 막연한 불안 때문에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반성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이를 성찰적 불신이라 부를 수 있다.

26) 원주보고서와 한살림 선언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김용우, 김재겸의 글을 참조.

27) 종교계 등의 생명평화운동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이소영의 글을 참조.

한살림 선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협동운동, 생협운동으로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한살림은 이제 30만 조합원을 자랑하는 거대 협동조합이 되었다. 환경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살리기 위한 유기농직거래운동이 지속가능한 협동적 경제의 모델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눈부신 성장 뒤에 그림자도 적지 않다. 물류와 유통, 생산과 소비는 있는데 협동과 생명의 가치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고, 민주주의의 결여와 관료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성으로 무장한 기업에 비해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지역공동체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고, 녹색정치 혹은 지방자치에 힘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다. 이 모든 평가는 보는 이의 입장에 따라 한살림에 기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양각색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비판들은 한살림이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살림의 미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살림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살림운동은 유기농 직거래 협동조합운동, 가치전환운동, 녹색정치운동, 지역운동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²⁸⁾ 첫째, 한살림은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명과 협동이 핵심적인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운동은 외국에서 찾기 어려운 독특한 이념과 운동방식을 보여준다. 자활과 자립, 자조의 정신에 생명과 환경의 가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한살림운동은 생태위기의 시대에 이념적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념적 정당성이 협동조합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으로서 한살림에 대한 평가는 경제적 측면과 조합 민주주의 측면에서 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한살림은 협동조합으로서 대안적인 경제, 대안적 지속가능 모델을 만들고 있는가?** 전지구적인 경쟁의 시대에 한살림은 살아남을 수 있는 협동조합 모델을 갖고 있는가? 생명과 협동의 가치 위에 만들어지는 대안적 경제 모델은 무엇일까? 그 프로그램과 로드맵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한살림은 해답을 함께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협동조합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평가해 보자.** 유럽이나 일본에서 생협은 슈퍼마켓의 하나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 안에서 시장이나 기업의 대안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운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경제단위로 활동하는 생협이 현재 제도화된 생협의 모습이다. 한살림은 다른가? 무엇이 다를까?

협동조합의 중요한 특징은 1인 1표의 민주적 지배가 관철된다는 점이다. 1주 1표의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바탕으로 협동을

28) 이것은 윤형근의 분류를 따른 것이다.

제도화하고 발전시킨다. 그러나 이런 이상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는 매우 어렵다.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대의원 혹은 이사들의 결정이 주류를 이루고 과두제의 철칙이 관철되기 쉽다. 단순한 소비자로서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 민주주의 교육과 생명교육을 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인터넷 주문과 매장 개설이 주류를 이룬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참여는 알뜰장터, 공부모임 등 주부와 여성 회원 중심의 활동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승욱은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결여를 비판했다.²⁹⁾ 이러한 비판은 경청해야 할 것이다. 조합원들 사이 그리고 조합원과 지도그룹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동조합이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살림의 내부 문제나 지역의 문제를 놓고 조합원들이 즐겁게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와 내용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성미산', '원주', '홍동', '안성' 같은 곳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나고 조합원들이 생협 민주주의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살림은 문화운동, 가치전환운동, 대안문명운동이다. '한살림 선언' 이후 한살림 모임은 별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그 흐름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한살림 조직과 관련해서 가치전환운동은 모심과 살림 연구소로 이어졌다. 모심과 살림연구소는 생명운동에 대한 연구, 네트워크, 자료 축적 등의 일을 하면서 생명문화운동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런데 모심과 살림연구소가 새로운 가치전환운동의 지평을 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생명평화 담론은 한 겨울 얼음 속 시냇물처럼 흘러왔지만 찬란한 새봄을 열지는 못한 것 같다. 생명평화 담론의 지향이 장기적이고, 지역적이며, 영성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자연스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생태사회위기의 긴박함을 고려하면 문화운동 가치전환운동의 질적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생명평화운동 1세대들의 거대 담론의 바탕위에서 위기를 넘어서는 창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한살림운동은 넓은 의미의 녹색 정치/자치 운동이다. 무크지 『한살림』에는 녹색당에 대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살림 모임은 좌도 우도 아닌 녹색당과 녹색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김지하, 문순홍, 주요섭 등은 생명민회운동을 통해 생명정치 혹은 한국형 풀뿌리 녹색정치를 실험했다. 그러나 높은 이상에 비해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이러한 지향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지방자치선거와 지방자치에서 변형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모심과 살림연구소가 만든 『한살림운동과 지역자치 -6.2 지방선거 간담회 자료집』(2010. 10)을 보면 한살림 사람들이 지방자치제에서 정치참여와 변화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29) 박승욱, "협동조합과 민주주의", 『녹색평론』 117호. 2011 3-4월.

한살림의 일부 그룹은 녹색정치/자치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대부분의 조합원이나 활동가들은 녹색정치/자치 혹은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다고 본다. 생활인, 조합원으로서 한살림 회원은 많지만 이들은 어떤 정치적 주체나 시민운동의 주체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생명민회'는 실패했고, 제도정치 참여나 영향력 행사도 쉽지 않은 것이 오늘 한살림과 생명운동의 현실이다.

넷째, 한살림 운동은 지역 살림 운동이다. 한살림운동은 도농직거래운동이지만 농촌 마을을 살리고 농촌 사람들을 민주적이고 자립적인 일꾼으로 키우기 위한 운동으로 시작했다. 땅도 살리고 마을도 살리는 운동이다. 예를 들면 아산 같은 곳은 한살림 생산자가 마을의 주류를 이루는 지역이 되었다. 원주는 또 다른 형태의 지역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서울과 과천, 고양에도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 다양한 실험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보수와 개발이 제도적, 문화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살림이 주도한 대안적 지역 공동체 모델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한살림과 지역의 생협,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생태사회적 발전과 녹색정치의 모델을 실험하는 미래를 볼 수 있을까?

3. 무엇을 할 것인가?

한살림 사람들은 평균적인 한국인들과 다른가? 아마 좀 다를 것이다. 나는 한살림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탈물질주의 가치관이³⁰⁾ 강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갖고 있다. 한살림의 리더 한 사람과 인터뷰를 한 경험에 의하면, 한살림 사람들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돈이 좀 적어도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꾸는 것 같다.

이런 꿈은 누구나 꾸는다. 아프지 않고, 먹고 사는 걱정 별로 하지 않으면서 가족과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일 잘하고 잘 쉴 수 있는 세상. 차별 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살 수 있는 세상. 문제는 이런 세상을 마을, 지역, 국가 차원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강력한 국가와 자본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살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이런 세상을 한살림 사람들이 만들 수 있을까? 한살림 안에서 이런 사랑과 호혜와 자립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까?³¹⁾

30) 경제성장이나 안보보다 삶의 질, 환경, 표현의 자유 등을 중시하는 가치관

31) 한살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울타리 안에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대면적 상호작용에 바탕을 둔 조직일수록 '우리 집단' 의식이 강하고 그들 사이의 이타주의가 '그들 집단'에 대한 배타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한살림에서 그런 경향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불가능하다. 한살림 조합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소비하기, 혹은 이와는 별도로 알뜰 장터를 열고, 공부 모임, 취미모임을 만들거나 드물게 시민참여운동을 벌이는 일이다.

한살림 사람들 중 대다수는 지금 여기에서 유기농직거래운동을 잘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으로 가는 느리지만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다면 아마 이 생각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생태 위기와 경제위기, 사회위기의 시계는 점점 빨리 움직이고 있다. 한살림 밖에서 한살림을 보고 공동체 밖에서 공동체를 내려다 보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는 위기와 전환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다. 가라타니 고진(炳谷行人)은 국가 안에서 국가를 넘어서는 전략이 아니라 국가 밖에서 국가를 넘어서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세계공화국과 평화정치를 주장했다.³²⁾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한살림 안에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국가와 자본이 너무 세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국가와 자본은 이 도시국가가 같은 한반도의 남쪽을 한 순간에 거덜낼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권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한살림이 한살림 안의 공동체 세우기, 만들기 전략과 함께 한살림 밖에서 개발국가 힘빼기, 세계평화체제 만들기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앞에서 한살림운동이 협동조합운동, 가치전환운동, 정치/자치운동, 지역운동이라고 정리했다. 이 네 가지 운동 가운데 협동조합운동은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살림은 먹거리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을 통해 농촌과 농민, 소비자를 살리는 운동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초 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재벌이 지배하는 시장을 대체하거나 그 시스템을 변형하는 데 성공한 것은 아니다. 비판적으로 평가하면 중간층의 소득 증대라는 조건 속에서 그들의 건강육구를 충족시키는 틈새 시장의 우연적 확장 덕분에 한살림이 성장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평가는 한살림이 쌓아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신뢰라는 자산을 폄하할 우려가 있지만, 경청해야 할 비판이다.

전환의 시대에 한살림은 협동조합운동 혹은 협동운동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소비자협동조합으로서 한살림의 성장은 먹을 거리 위험의 시대에 신뢰를 축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공급 방식의 변화, 새로운 물품의 개발 등 변화의 고비마다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덕분이다. 이제 한살림은 사회적 신뢰라는 자산과 조합원과 활동가들의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않다. 그러나 한살림이 조직의 틀을 뛰어넘는 거시적 리더십의 모범을 보이지도 못하고 있다.
32) 가라타니 고진(炳谷行人) 2010. “平和の実現こそが世界革命 (평화의 실현이야말로 세계혁명)”. 『世界』 2010년 10월호. pp.114-126. 岩波書店.

전환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근대산업문명의 위기는 생태적 재난과 경제적, 사회적 재난의 형태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생태적 약자들의 삶을 점점 더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재벌과 국가라는 시스템 안에 있는 강자들은 이러한 재난을 피할 자원들을 갖고 있지만 시스템 밖의 민중과 자연은 생존의 위기를 경험할 수 밖에 없다. 한살림은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호혜의 그물망을 만드는 작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성공 모델을 통해 시스템 안의 기업과 국가에 영향을 주고 협동의 모델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살림 안에서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외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동노동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경제 모델을 만드는 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하되 돌봄, 대안 에너지, 대안 금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 걸쳐 협동의 연대망을 어떻게 만들지 연구하고 실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합원들의 삶의 불안과 소망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그 요구를 새로운 전환의 에너지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으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심과 살림 연구소의 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쿠바 등 다양한 국가의 협동조합, 공동체 등 대안 모델을 연구하고 한살림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창의적이면서 실천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한살림의 가치전환운동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1990년대 초에 비해서는 크게 확산되고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한살림이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살림이 먹거리 직거래운동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나 『녹색평론』이 생명의 가치관을 확산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했다.³³⁾ 한살림은 먹을거리를 매개로 수십만의 조합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지만, '한살림 선언'이라는 선언에 걸맞은 가치전환을 실현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환의 시대에 한살림은 새로운 가치전환운동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성공에 얽매어 있기만 하면 협동과 생명이라는 신뢰 자산은 점차 줄어들지도 모른다. 한살림이라는 가치를 변화된 시대에 새롭게 재구성하고 이를 조합원, 활동가는 물론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조합원의 중심인 여성과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리더십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설화하는 것

33) 이 보고서의 이소영의 글을 참조.

이 중요하다. 이론과 실천 방법, 대화와 소통 능력,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 등 여러 부분에 걸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가와 조합원이 자신과 공동체의 자긍심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한살림 학교'를 만들어 대안적 평생교육 학교로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정치/자치운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살림운동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모두 넘어서는 대안적인 문명을 지향하는 운동으로 시작했다. 이러한 문명전환운동은 개인과 문화의 변화 뿐만 아니라 정치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한살림은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는 전략을 유지해 왔다. 부분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했지만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전략 때문에 온건한 중간층의 부드러운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정치/자치운동이 없는 한살림은 기업과 별 다른 점이 없는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다. 변화와 혁신을 좋아하지 않는 조합원과 활동가가 늘어날수록 제도화와 관료화의 경향은 강화될 것이다. 협동의 담론은 있지만 기업과 별다른 없이 기능하는 협동조합을 선진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환의 시대에 이러한 협동조합은 호혜의 망 속에서 생명을 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체제를 전환하는 프로그램 없이는 한살림의 기반인 자연 그리고 농민과 도시의 중간층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다.

따라서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체제, 스스로 협동하고 서로를 살리는 자치체를 만드는 훈련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으로 자리를 잡은 한살림이 이러한 일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살림 선언이 그저 말로만 한 선언이 아니라면 처음을 돌아보며 녹색 정치를 위해 한살림이 무엇을 해야하고 할 수 있을지 심각한 토론을 해야 할 것이다. 여성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생태 민주적 리더십을 키우는 참여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내부의 민주적 리더십을 키워나갈 때 지역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운동은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살림운동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원주, 아산 등 여러 지역 공동체가 발전했고 대안적인 교육, 문화, 의료, 농촌 등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의 모범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전북 진안에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마을 만들기 모델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서울시도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위험성도 있지만 기회임에 틀림없다.

지역에서 협동과 생명의 대안 공동체, 대안 지자체 모델을 만들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억압적 속성을 없애고 개발 동맹의 힘을 약화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위로부터의 졸속 참여 모델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람의 참여와 전환을 차분히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협동조합, 가치전환, 녹색정치, 지역운동, 이 네 가지 운동은 떨어져 있으면서 연결되어 있다. 가치전환 없는 협동조합운동은 기업처럼 변할 수 있다. 녹색 정치 없는 협동조합은 폭력적 국가 앞에서 바람 앞의 등불이다. 지역 없는 협동조합은 주춧돌 없는 집이다.

나는 이제 스무살이 넘은 한살림이 보다 큰 기획을 갖고 이 네 가지 운동을 창조적으로 결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소망한다. 현대 산업문명이 경제위기와 생태적 재난 앞에서 전환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위기 앞에서 부자들은 인종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무기로 전쟁을 일상화할 것이고 가난한 이들은 거기에 휩쓸리면서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일상적 전쟁이 더욱 격화될지도 모르는 미래에 한살림은 이전 산업근대 시대의 모델로 위기에 대응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산업근대를 넘어서는 담론은 있으나 이를 변형하고 실천할 창의적 리더십이 부족한 것이 오늘 한살림 그리고 한국의 문제이다.

4. 한살림의 내일

과학기술, 성장, 개발, 민주 등의 기호가 의심 받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그럴수록 더 많은 과학기술, 개발, 민주 혹은 독재를 열망하고 그 힘으로 위기를 넘어서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다른 기초 위에서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나는 **성찰적 불신을 넘어 새로운 협동과 우애의 신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산업 근대와 다른 새로운 체계 속에서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의 공동체, 어소시에이션의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한살림에는 전환시대에 새로운 삶의 전환, 사회의 전환을 이끌어낼 보석 같은 존재들이 있다. 1970년대부터 협동운동을 이끌어 온 사람들, 수십년간 한살림과 함께 청춘을 꽃피운 사람들, 젊은 조합원들, 동양사상에 정통한 이론가들, 30만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다르다. 그러나 이들은 한살림이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덩치가 커져서 짝싸게 움직이기 힘든 한살림이지만 이런 존재들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것이다. 큰 중심은 무겁게 가 되, 작은 실험적 조직들을 만들거나 외부의 지원조직을 만들어 이런저런 실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운동성을 살리기 위해 별도의 정치/자치 조직을 만들고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합원들을 위한 자치 학교,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직과 사람의 혁신을 꾀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한살림 지역 모델을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어떨까? 이 모든 일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튼튼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이다.

생명운동·한살림운동·생활협동운동의 관계와 정의(요약)

- <3차 워크숍>의 토론 결과를 중심으로 -

■ 정의

- 생명운동: 생명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활양식과 문명을 창조하려는 사회적 운동.

- 생명운동의 세 가지 영역: 생명문화운동, 생활협동운동, 사회실천운동.

- 몇 가지 생각

- 생명운동은 무엇보다 생명공동체운동이다. 인간과 인간, 자연과 생태계와 별과 바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 생명공동체임을 자각하는 일이다.

- 또한 생명과 운동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 생명공동체운동, 생명살림운동, 생명평화운동, 생명문화운동 등등. 생명운동은 이러저러한 생명운동을 통칭한다.

- 생명운동은 그저 생명운동이다. 생명이 생명답게 제각각 아름답게 살아나도록 나를, 사회를,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회적 활동이다.

- 한살림운동:

- 생명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도·농/소비자·생산자의 협동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조하는 사회적 운동.

- 몇 가지 생각:

- 철학과 사명(미션)의 혼동: 생명운동의 가치 지향과 사명은 다르다. 혹은 가치비전(한살림세상)과 과제비전(먹을거리·농업)의 혼동.

- 한살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이다. 그러나 사명, 곧 한살림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밥상살림·농업살림이다. 다시 말해 한살림의 생명운동은 '밥(물품)'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 동학과 한살림: 동학의 생명운동은 '수행'에서 시작해 '수행'으로 끝난다. 그 과정에 유무상자(有無相資)도 있고 정치혁명도 있다. 한살림의 생명운동은 '밥'에서 시작해 '밥'으로 완성된다. 그 과정에서 '밥 한 그릇'의 깨달음도 있고, 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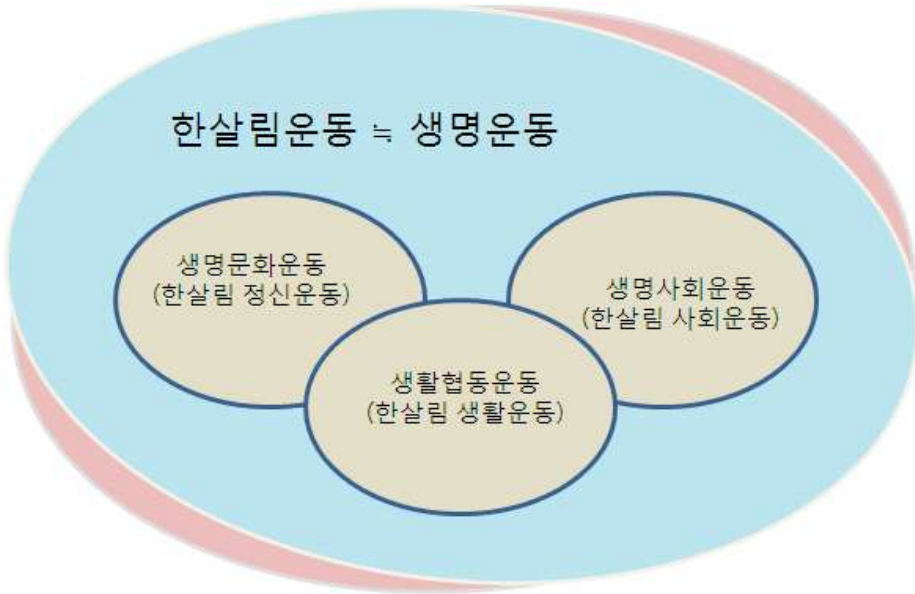
혁명도 있다. 밥상살림과 농업살림, 밥상나눔의 한살림세상에 대한 열망과 실천도 있다

- 생활협동운동: 생활의 필요(needs)와 바람(aspiration)을 협동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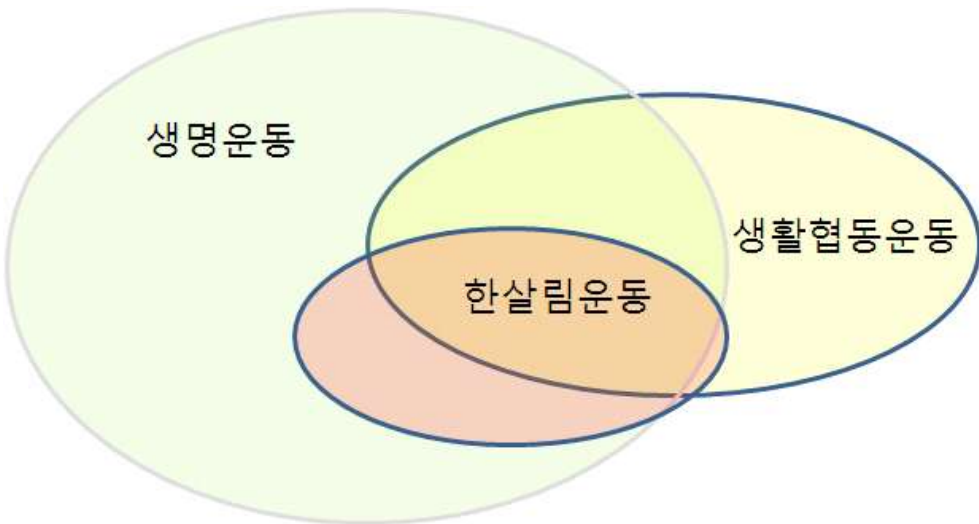
■ 관계

- 생명운동은 자기완결적인 철학과 비전과 운동론과 전략을 가진 포괄적인 이념 운동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다른 운동 영역들을 포괄한다.
- 『한살림선언』에 따르면 한살림운동은 곧 생명운동이다. 『한살림선언』에 의하면, 한살림은 생명의 이념과 활동 그 자체이며, 전일적인 생명활동을 이르는 말이다.
- 그러나 한살림운동은 25년 실천과정에서 직거래를 핵심전략으로 하는 먹을거리, 생활협동운동에 집중했다. 때문에 오늘날 한살림운동은 생명운동의 일부일 뿐이다. 한살림운동은 생명운동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므로 “한살림운동은 생명운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생명운동이 한살림운동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 한살림의 생명운동은 주로 먹을거리운동, 도농직거래운동, 생협운동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한살림운동이 곧 생협운동은 아니다. 물론 그 반대도 아니다.
- 한살림운동은 생협운동이면서도 동시에 생협운동만은 아니다. 그 지향과 방식에서 있어서.
- 이들 관계를 그림으로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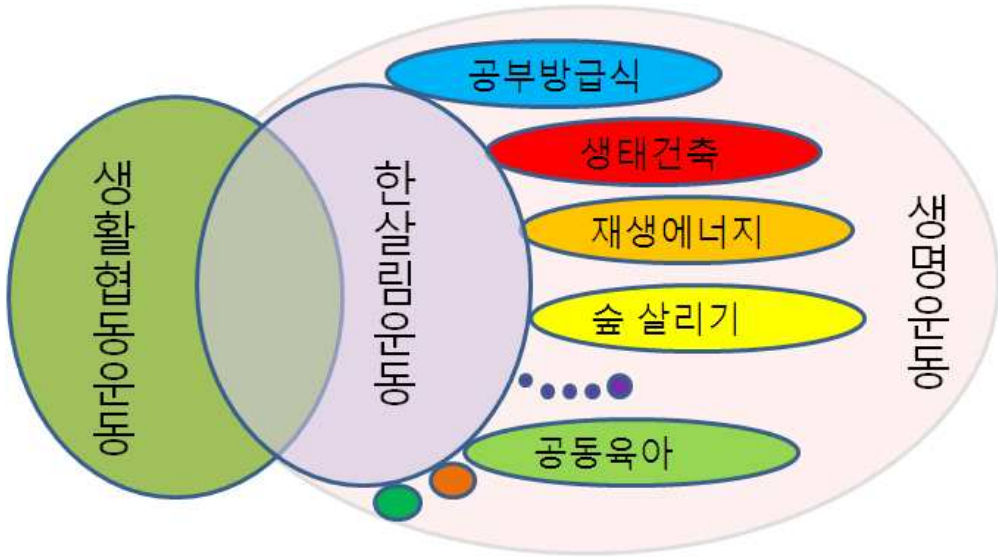
<과거>



<현재>



<미래>



생명운동 30년, 역사와 전망

발행일 2011년 12월 31일

발행인 박맹수

발행처 모심과살림연구소

(100-412) 서울시 중구 광희동2가 360번지 동훈빌딩 5층

<http://mosim.or.kr>